碩士學位論文

曹植 樂府詩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沈 三 龍

110.365

2000年 12月

曹植 樂府詩 硏究

指導敎授 郭 利 夫

沈 三 龍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沈三龍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0年 12月

目 次

中文概要 ····· I

제 I 장. 序論 ····· 1
제 1 절. 研究目的과 研究概況 ····· 1
제 2 절. 研究範圍와 研究方法 ····· 3

제 II 장. 生涯와文學 ····· 5
제 1 절. 生涯 ····· 5
제 2 절. 文學的 背景 ····· 11
제 3 절. 曹植의 文學觀 ····· 12

제 III 장. 曹植 樂府詩의 淵源과 風格 ····· 17
제 1 절. 淵源 ····· 17
1. 詩經 ····· 17
2. 楚辭 ····· 21
3. 古詩 ····· 22
4. 樂府民歌 ····· 25
제 2 절. 風格 ····· 27
1. 典雅 ····· 30
1) 遊宴 ····· 31
2) 說理 ····· 36
2. 幽怨 ····· 40
3. 悲憤 ····· 49
4. 豪放 ····· 57
5. 飄逸 ····· 64

제 IV 장. 結論 ····· 71

參考文獻 ····· 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中文概要

在中國文學史上詩從詩經以來發生了很大的變化，文人的作品到了唐代近代詩終于開花結果。在這漫長的變化發展中，漢代和漢末建安時期的樂府詩對詩經與近體詩的連結過程起到了非常中要的作用。

關于曹植樂府詩在樂府詩史上的位置丁晏在《曹集詮評》的陳思王詩鈔原序中稱之爲"樂府的津源"，并且主張漢樂府的變化是從曹植開始的。

從曹植的詩歌中選擇他的樂府詩作爲研究對象有以下兩個理由。首先，從形式上來看，曹植把民間的雜言體樂府作爲建安時代的文學樣式并將它定型化起到了非常重要的作用。雜言體、非定型體式經過曹植的加工確立爲五言體，以後，五言體成爲中國詩的主要詩體。其次，曹植的作品不近反應了當時社會的現實，而且在魏晋六朝詩的世系圖上具有個人的浪漫性，容易看出他對文學自體的繼承和創新所起到的側面效應。他的樂府詩當然代表了他的詩風，也能看出代表唐代的詩風。

五言定型化的問題留作日後的研究課題，在本考首先對待曹植的作品進行徹底的解釋和分析考察他詩歌的淵源及風格，對曹植作品中出現的繼承與創新的側面進行集中論證。

第1章是序論.　在第2章考察他的生平及時代背景。一般來說文學作品分明是時代的産物，曹植所處的時代狀況又是非常特殊的。在這兒分析曹植樂府詩風格形成的動機和生活環境下文學的背景，然後對曹植文學觀是如何形成的進行論證。接着在第3章對曹植樂府産生影響的前代文學和風格進行分析。關于曹植樂府詩的風格，通過他生平的描述來揭示他的思想及文學的變化，探討曹植當時所處的狀況與文學間的關係。在第4章通過以上的論據得出結論。

通過以上的論證對曹植的樂府詩研究作以下整理。

在思想上，他爲了政治的理想與現實而選擇了儒家思想，爲了擺脫現實的痛苦而去追求道家思想的精神境界。在內容上，掙脫前代客觀的敍事文學形成了主觀的抒情文學。形式上，拋開了漢代樂府質朴的文體，寫出了優美華麗的詩篇。在文學史上，把傳統的功利主義文學發展成魏晋南北朝時代的浪漫主義和唯美主義文學，并在過渡

期上起到了先導作用。

曹植超人的才能和勤勞的創作對中國古典詩歌的發展作出了很大的貢獻。在詩經與楚辭之後爲後人樹立了一座里程碑。從這些成果上看來，曹植在中國文學史上占有非常重要的位置。雜言體的樂府詩成爲建安時代的文學樣式的同時并將之詩體固定化上起到了非常重要的作用。雜言體、非定型體式經過曹植的加工將它確定爲五言體，以後成爲中國詩的主要詩體，從這一點上來說也是他對文學貢獻，對此要求要作更進一步的研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第 I 章. 序論

제 1 절. 研究目的과 槪況

樂府詩史上 曹植 樂府詩의 위치에 대해 丁晏은 《曹集詮評》의 陳思王詩鈔原序에서 "樂府의 津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본격적인 漢 樂府의 변화는 曹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 鍾嶸(?-518)은 《詩品》에서 曹植의 詩를 上品에 編入시켰으며, 謝靈運(385-433)도 그의 詩才를 두고 "천하의 재주가 모두 열 말이라면 曹植이 혼자 여덟 말을 차지하였고, 내가 한 말을, 自古以來 지금까지의 才士들이 모두 한말을 썼다"[2]고 했을 정도로 歷代 詩話와 詩論에서 대부분 曹植 詩의 성취를 거론하고 있다.

중국문학사에서 詩는 詩經이래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문인의 작품인 唐代 近體詩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변화발전 속에서 漢代와 漢末建安時期의 樂府詩는 詩經과 近體詩의 연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中國文學史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새로운 文體의 형성은 民間文學에서 시작해서 文人들의 손에 의해 發展되고 마지막에는 形式主義로 흐른다는 것이다.[3] 樂府의 발달과정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악부의 발전과정에 대해 樂府創始期 (漢代) → 樂府擬作期 (魏晉) → 樂府新變期 (六朝) → 樂府漸興期 (北朝) → 樂府完成期 (隋唐)의 五段階로 區分하는데[4], 조식은 樂府擬作期에 해당하며 민간문학을 문인문학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 동안 曹植에 대하여 많은 연구는 대부분 일반 雜詩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樂府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식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1) 丁晏, 《曹集詮評》 〈 陳思王詩鈔原序〉 : 詩三百篇十九首以來, … 樂府之津源也.
2) 《宋書 · 謝靈運傳》 "天下才共一石, 曹子建獨得八斗, 我得一斗, 自古及今共用一斗"
3) 楊生枝, 《樂府詩史》, 靑海出版社, 臺北. 1985
4) 上同 , p. 12

本考에서 다루고자 하는 曹植의 악부시는 郭茂倩의《樂府詩集》[5]에서 樂府詩라고 수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식의 시가 중 樂府詩歌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한 이유는 첫째로,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民間에서 지어졌던 雜言體의 樂府가 建安時代의 문학양식으로 채택되어 지면서 일정한 시체로 定型化 되면서 曹植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는데, 雜言體나 비정형체식이 조식의 손을 거쳐 五言體로 확립되면서 이후 中國詩의 主要詩體로 확립되었다는 점, 둘째로, 曹植의 作品이 漢樂府의 사회시적 사실성을 보존하는 한편, 兩晋六朝詩를 계도하는 개인시적 낭만성을 지녔으며, 문학자체의 繼承과 創新이라는 역할측면을 고찰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며, 그의 악부시가 그의 시풍을 대표하였음은 물론이고, 당대의 시풍을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本考에서는 五言定型化라는 문학사적 문제는 後日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우선 작품의 철저한 해석과 분석을 통해 연원적 고찰 및 風格 등을 논하여 조식작품에 나타난 繼承과 創新이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論하여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개황을 중국과 우리나라의 논문과 저술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조식에 대한 연구는 曹氏三父子의 연구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중국의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면의 연구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연구논문으로, 이미 《中國古代 · 近代文學研究》[6] 에도 상당수의 논문이 있으며 관련 논문도 꾸준히 발표되는 편이다. 저술면에서는 方祖燊의 《漢詩研究》, 王種陵의 《中國中古詩歌史》, 蕭滌非의 《漢魏六朝樂府文學史》, 羅根澤의 《樂府文學史》, 胡適의 《白話文學史》, 張永鑫의 《漢樂府研究》, 等 많은 서적에 조식의 시가 소개되고 있지만 , 曹植 개인에 대한 연구나 특히 그의 樂府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출판된 《三曹與中國詩史》[7]에도 조식 악부시의 특징과 사상에 대하여 대략적인 소개가 있으나 대부분이 정서적이고 詩史의 관점에서 조식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국내에서의 관련논문을 먼저, 학위 논문으로 살펴보면[8], 金鍾振의 논문은 처음으로 조

---

5) 郭茂倩,《樂府詩集》,中華書局出版, 1996.
6) 復印報 刊資料,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中國古代, 近代文學研究》,北京 ,1981～1990.
7) 孫明君. 《三曹與中國詩史》 清華大學出版社. 北京. 1999.
8) 金鍾振,《曹植詩論考》,碩士學位論文, 1971. 李在夏,《曹植文學研究》, 碩士學位論文,

식을 다룬 논문으로서 의의가 있고, 鮮于世昊의 논문은 三曹의 詩歌중 樂府詩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발표된 조식의 논문중 대부분이 조식의 시가를 개괄적으로 논하였으며, 1986년 李翼熙의 曹植賦의 연구가 조식문학의 한 장르에 대한 성과로 의의가 있다. 1988년 揚金永의 논문에서 조식의 악부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작품전체의 해석과 세밀한 분석에 아쉬움으로 남는다. 1995년 이아영의 논문에서 三曹의 악부시가 분석 되었으나 이러한 것도 작품전체에 대한 해석과 三曹 전체를 다루어서 조식 악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별적 연구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국내의 연구논문[9]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조식에 관한 연구상황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그의 악부시에 관한 논문으로는 한 두 편에 불과하여, 조식의 악부시에 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해석을 통해 내용분석과 풍격에 관해서 고찰 하고자 한다.

제 2 절. 研究範圍와 方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조식의 악부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의 악부가 과연 몇 수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본고에서는 40首로 규정하고자 한다.

1981. 鮮于世昊,《三曹樂府詩研究》, 碩士學位論文, 1983. 高惠淑,《曹植詩研究》, 碩士學位論文, 1983. 李在敦,《曹植詩文의 韻部研究》, 碩士學位論文, 1983. 李翼熙,《曹植賦研究》, 碩士學位論文, 1986. 李元揆,《曹植詩研究》, 碩士學位論文 1987. 李雅瑛,《曹植詩研究》, 碩士學位論文, 1987. 揚金永,《曹子建樂府詩研究》, 碩士學位論文, 1988. 李雅瑛,《三曹詩歌文學研究》, 博士學位論文, 1995. 金成鎭,《曹植詩研究》, 碩士學位論文, 1996. 盧基鉉,《曹植詩의 藝術的 成就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1996. 李昇薰, 《曹植의 詩에 사용된 典故의 특성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1997. 등이 있다.

9) 范善均, 曹植의 贈答詩, 中國文學 제4집, 1977. 文璇奎, 曹植의 文學的 環境과 文學觀, 中國文學 제7집. 1980. 高惠淑, 曹植文學의 淵源考察, 中國學研究, 1988. 李雅瑛, 三曹樂府詩研究, - 內容의 抒情性을 中心으로 - 中國人文科學, 1987. 李雅瑛, 三曹樂府詩研究, - 樂府形式을 中心으로 - 中國人文科學, 1988. 等이 발표되었다.

원래 曹植의 文集은 魏朝 中期에 두 종류가 존재해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曹植이 직접 편찬한 것이고, 또 하나는 景初中期 明帝 曹叡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것이라고 한다. 史料가 없어 두 文集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景初年間에 편집된 것에는 賦, 頌, 銘, 雜論등 모두 100여편이 있다고 하였는데, 曹植의 〈前錄自序〉에는 賦만도 78편 이어서 차이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景初年間에 편집된 것은 選本일 가능성이 높다. 趙幼文은《曹植集校注》 前言에서 "明淸代에 이르기까지 조식의 文集들은 문자의 출입이 심하여 여러 가지 設이 분분하나, 淸 丁晏《曹集詮評》에 실려있는 50首는 丁晏이 舊本 및 여러 자료를 검증하여 가려 뽑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하다"[10]라고 하였는데, 이 주장은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蕭滌非[11]는 《漢魏六朝樂府文學史》에서 丁晏의 《曹集銓評》에 실려 있는 50首를 기본으로 하여 편폭이 커서 둘로 나누어진 작품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여기고서 '曹植의 樂府詩는 총41수'라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그가 분류한 41首 중에서 舞曲인 〈聖皇篇〉을 제외한 총40首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판본으로는 郭茂倩의《樂府詩集》[12]으로 하였으며, 그가 분류한 내용중 각 목록에서 편명이 수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제목이 동일한 것을 취하여 작품 전체에 대한 철저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용과 풍격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13].

제2장에서는 그의 생애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은 시대적 산물임이 분명하나, 조식에게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曹植 樂府詩의 風格이 형성하게된 동기와 생활환경에 따른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조식의 문학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조식의 악부에 영향을 준 前代의 문학과 풍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식 악부시의 풍격에 대해서는, 조식의 인생 흐름에 따라 그의 사상과 문학이 변하였음을 밝혀 당시의 조식이 처해있는 상황과 문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論旨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한다.

---

10) 趙幼文,《曹植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8, pp2-3 요약.
11) 蕭滌非,《漢魏六朝樂府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8, p.141.
12) 郭茂倩 《樂府詩集》 中華書局出版, 1996.
13) 분류의 기준은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여 鍾嶸의 詩品에 나타난 장르별 분류 방법을 참조 하였다.

第 II 章. 生涯와 文學

제 1 절. 生涯

曹植은 字가 子建인데, 마지막에 陳의 王에 封해졌고, 諡號가 思였으므로 후세에 陳思王이라고 부른다. 그는 서기 192년(漢獻帝 初平3년)에 曹操의 三男으로 태어났으며, 후에 魏나라 文帝 曹丕의 동생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무질서했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의 부친 조조는 서기 200년(建安 五年)에 당시의 최대군벌인 袁紹를 격파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서기 208년(건안 13년)에 승상이 되었다.

鄴城을 근거지로 정하고 漢의 天子까지 위협할 정도로 강성해짐으로서 중국의 북방은 대체로 통일되고 사회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한다. 당시 曹操의 주위에는 文臣과 武將 뿐만 아니라, 많은 文人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처럼 정치적이나 문학적으로 曹植은 조건이 매우 좋았다. 또한 가정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었다.

母親 卞夫人은 山東人으로 曹操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14]. 조식의 나이 다섯살 때(A.D 196) 조조가 변부인을 正室로 맞아들이게 되자 嫡子의 신분을 지니게 된다[15].

조식의 생애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점은 그의 형 조비가 황제로 등극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전반기는 부친 슬하에서 귀공자적인 삶으로 자신의 뜻을 가질 수 있었고, 후반기는 정치적 세력에서 밀려나 방황하는 시기이다. 이에 그의 생애를 전후반 두 시기로 나누어 간단히 고찰 하고자 한다.

1. 前半期

---

14) 曹操와 卞夫人 사이에는 丕.彰.植.熊의 4 형제가 있었다.

15) 曹操가 卞夫人을 맞기전에 이미 丁氏와 劉氏의 두부인이 있었으나, 劉氏는 일찍 죽었으며, 丁氏와는 建安初年에 헤어지고, 卞夫人이 正室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조식의 유년시절은 漢末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나 그의 부친 조조가 정권을 잡아 그의 보호하에, 父親의 엄격한 교육과 母親의 자애스러운 사랑 속에서 아주 행복한 시기였다.

조식은 어려서부터 문학적 방면에 천부적 재질을 보여, 십여세에 詩論 및 辭賦 數十萬言을 誦讀하였으며, 말에 論理가 정연하고, 筆을 휘두르면 文章을 이루니 그의 부친도 아들의 聰明함을 의심할 정도였다[16]. 또한 그의 성격은 "성격은 簡易하고, 까다로운 예의를 좇지 않고 服飾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17]. 부친인 조조가 묻는 難題에 응답을 잘하여, 조조가 특별히 총애하였다. 그리하여 조조는 조식의 문학적인 재질과 정치적인 力量의 발휘를 기대하였다. 조식은 소년시절 야심가인 부친 조조로부터 문무를 겸비한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정치적 수련도 쌓아, 조조가 출정할 때 함께 종군하여 병법을 체득하고 안목을 넓혔다. 이 시기의 상황을 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옛날 臣은 先武皇帝를 따라 南으로는 赤岸, 東으로는 滄海에 이르렀고, 西로는 玉門을 바라보고 北으로는 玄塞을 지나면서 그 用兵術을 보았는데 그것은 神妙한 것이었읍니다.
(〈求自試表〉 : 臣昔從先武皇帝,南極赤岸, 東臨滄海, 西望玉門 北出玄塞, 伏見以行 師用兵之勢 可謂神妙也)[18]."

조식은 건안 16년(211)에 平原侯에 封하여지고, 건안 19년(214)에 臨菑侯에 封하여졌다. 이때에 조조가 손권을 정벌하러 갈 때에 조식을 남겨 鄴城을 지키게 하며, 자신의 23세 때와 비교하였다.

"태조가 손권을 정벌할 때 植으로 하여금 鄴에 남아서 지키도록 하고 경계하며 말하기를 내가 옛날 頓邱令이 되었을 때 나이 二十三세였다. 그때의 소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없다. 지금 너의 나이 또한 二十三세이니 노력 하지않을 수 있겠는가.
(太祖征孫權, 使植留守鄴, 戒之曰, 吾昔爲頓邱令, 年二十三, 思此時所行, 無悔於今, 今汝年

16) 《三國志·魏書》 〈陳思王植傳〉:「年十餘歲, 誦讀詩論及 辭賦數十萬言, … 夸何倩人.」
17) 上同 : 性簡易, 不治威儀, 輿馬服飾, 不尙華麗
18) 趙幼文 《曹植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8, p. 370.

亦二十三矣, 可不勉與).[19]

이와 같이 조식이 얼마나 많은 신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조식은 이 시기에 부친을 따라 출정하거나 잠시 공무를 처리한 것 이외에는 귀공자로서 귀족생활을 즐기며 대부분의 생활을 문학생활에 열중하였다. 그는 당시의 건안[20]문단을 建安七子[21]와 이끌며 文名을 떨쳤으며 그의 기질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마음대로 행동하여 자신을 억제할 줄을 몰랐고, 술 마시기를 절제하지 않았다[22].
(任性而行, 不自雕勵, 飮酒不節).

그러나 權謀術數를 잘 쓸줄 모르고 거기에 더하여 두차례의 뚜렷한 過誤를 범하였다. 한번은 수레를 타고 사사로이 王宮大門 司馬門을 열고 나와서 당시의 禁令을 위반하여 그의 부친의 大怒를 샀다. 또 한번은 조조가 그를 임명하여 關羽에게 포위된 曹仁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너무 술에 취해 있어서 명령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실수 등으로 말미암아 부친의 寵愛를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은 불우해져 갔다.

조식의 귀공자로서의 생활은 王位繼承에 따른 太子冊封문제에 휘말리면서 그의 인생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조식이 형 曹丕보다 총명하였기에 조조는 조식을 太子로 책봉하려고 하였었다. 이러한 과정에 長子인 曹丕를 중심으로 모여든 측근인 吳質, 桓階, 崔琰 등과, 조식을 중심으로 하는 楊修, 丁儀, 丁翼 등의 측근들 사이에서 치열한 정권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조비는 조식을 더욱 시기와 질투를 하게되었다. 조식 또한 부친의 기대에 못지 않게 정치적 성공을 희망하였다.

---

19) 上同, p. 570

20) 漢의 마지막 황제인 獻帝의 年號(196-219). 시대 구분상 아직 漢代에 속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때는 이미 漢室이 조조의 세력하에 있었고 또한 그문단의 성격이 魏文帝 黃初年間(A.D 220-226) 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문학사에서 이시기를 魏代의 문학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21) 建安年間에 활동했던 7인의 詩文家로 일명 鄴中七子. 孔融(153-208), 陣琳(?-217), 王粲(177-217), 徐幹(171-218), 阮瑀(?-212), 應楊(?-217), 劉楨(?-217).

22) 《魏志 · 陳思王傳》

그는 벗 양수에게 보낸 편지 「與楊德祖書」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다.

"文章은 小道라 本來 大義를 發揚하여, 來世에 드러낼 만한 것은 못된다. 옛날 揚雄은 前期에 창을 잡고 임금을 호위하는 신하에 지나지 않았으나 (文章은) 壯夫의 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내 비록 德은 없지만 지위는 제후에 있으니, 위로는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며, 永世의 업적을 세워 金石에 새길만한 불후의 공적을 남기고 싶다. 어찌 헛되이 文筆로서 공적을 삼으며 文章으로써 君子가 되겠는가."
(辭賦小道, 固未足以揄揚大義, 彰示來世也. 昔揚子雲先朝執戟之臣耳, 猶稱壯夫不爲也. 吾雖德薄, 位爲藩後, 猶庶幾戮力上國, 流惠下民, 建永世之業. 留金石之功 豈徒以翰墨爲勳績, 辭賦爲君子哉)[23]

그의 정치적 포부와 이상을 그의 측근인 揚修에게 말하였다. 揚修도 이 글에 대한 答信을 보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라를 잘 다스려 아름다운 이름을 오래도록 남기며, 큰 종에 功績이 새겨지고, 책 속에 이름이 남겨짐을 잊지 마시오. 그 관대한 기상은 본래 기르는 바이니, 어찌 文章과 서로 방해가 되리요."[24]
〈答臨菑侯〉 (若乃不忘經國之大業, 流千載之英聲, 銘功景鐘, 書名竹帛, 斯自雅量, 素所畜也. 豈與文章相妨害哉)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문학에 종사하는 것은 서로 해가 되지 않으니 동시에 추구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建安 22년 (A.D 217년) 11월 드디어 형 曹丕가 太子로 정해지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둘러싸고 질투와 반목이 심했던 조비, 조식간의 帝位다툼은 끝을 맺었다.

제위계승 문제는 조비와 조식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측근들의 권력투쟁이

23) 趙幼文, 前揭書, p. 154.
24) 上同, p. 158

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조식의 측근인 揚修가 조비에게 주살 되었고, 건안 25년 조조가 죽고 조비가 재위에 오르자, 또 다른 측근인 丁儀 丁翼 형제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주살하여 조식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사람조차 없었다. 조조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안락한 생활도 끝이 난 것이다.

2. 後半期

조식의 안락한 삶은 부친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후 그가 죽기까지의 시기로 정치적인 좌절과 실의를 겪으면서 그의 사상과 문학이 크게 변하는 시기이다.

帝位에 오른 조비는 자기와 帝位를 다투던 조식에 대해 항상 敵意를 가지고 해치려 했기 때문에 조식은 항상 공포와 압박에 시달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建安 25년 조비는 漢獻帝에게 禪讓받고 國號를 魏라하고 年號를 黃初라 했으니 그가 魏文帝이다. 조식은 형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고 한다.

" 臨淄侯 植이 魏가 漢을 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프게 울었다. 文帝는 植이 이러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못들은 척했다. 황제가 낙양에서 조용히 말하기를 … 나는 하늘의 뜻으로 禪讓을 받았거늘 우는 사람이 있음을 들은즉 어떠하겠는가".

(初則及臨淄侯植, 聞魏氏代漢, 皆發喪悲哭, 文帝植如此不聞則也. 帝在洛陽嘗從容言曰. … 吾天受禪, 而聞有哭者何也)[25]

文帝는 겉으로는 이러한 표현을 하였으나, 이후 조식을 죽이려고한 사실이 많이 있으며, 兄弟藩國을 항상 적대시하고 견제하였으며 위협하였다.

"黃初 2年 監國謁者 灌均이 皇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上奏하여 조식이 술에 취하여 거칠게 도리어 使者를 위협하니 그 죄를 다스려야한다고 했다. 文帝는 太后로 인하여 爵位만을 安鄕侯로 낮추었다."

(監國謁者灌均希指, 奏植醉酒悖慢, 劫脅使者, 有司請治罪. 帝以太后故, 貶爵安鄕侯.)[26]

---

25) 《三國志 · 蘇則傳》

이때부터 文帝의 압력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조식은 자신을 보호해줄 부친의 총애와 측근들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굽힐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친 卞太后의 덕분에 文帝가 마음을 돌려 그해 다시 鄄城侯에 封해졌다.

黃初 4年에 朝禮에 참가하기 위하여 任城王, 白馬王과 함께 洛陽에 왔는데 형제간의 암투로 任城王 曹彰은 毒殺을 당하였고 白馬王 曹彪와 그는 급히 藩國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白馬王과 함께 還國하려 했으나 관리로 하여금 같이있지 못하게 감시하니 백마왕과의 이별의 悲憤을 억누르며 贈白馬王詩 7首를 지었다.

黃初 6年 魏 文帝가 東進하였다가 雍丘에 들려서 조식의 宮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이때 文帝는 동생의 생활고와 충성심에 느끼는 바가 있어 옛날의 앙금을 버리고 五百戶를 더해 주었다.[27]

그러나 다음해인 黃初 7年에 조비가 병으로 죽고 조비의 아들 曹叡가 즉위하니 그가 魏 明帝이다. 명제도 역시 조비에 대해 동정적이지 않고 시기와 박해가 조비 못지 않았다. 이에 조식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게 된다. 明帝는 조식이 封地를 근거로 힘을 기르거나, 혹은 藩王들의 세력을 이용할까 두려워서 조식을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다.

조식은 이렇게 전반기에 안락한 생활에서 후기의 좌절과 비애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생활로 이어지는 인생행로를 걸었는데 조식의 문학적 감정에는 그가 겪었던 개인적 경험 등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겪게 되는 인생살이에서 느끼게 되는 感懷 등을 詩로써 표현하였다. 그래서 조식의 작품들이 그의 人生旅程에 따라 風格이 변화됨을 느낄 수 있다.

---

26) 《三國志·本傳》

27) 上同. 「六年帝東征還, 過雍丘, ……辛植宮增五百戶」

제 2 절. 文學的 背景

조식이 처해있던 역사적 위치는 後漢末 삼국시대의 魏나라였다. 이 시기는 문학사적으로 볼 때 전환기이며 과도기적 시기로 이 당시 많은 文人들이 나와 文壇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한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 建安시기에 있어 정치의 실권자인 曹操가 능력을 위주로 관리를 선별하였기에 수많은 文士들이 曹操의 幕下로 몰려들었다. 또한 조조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인 조식, 조비 역시 문학을 愛好하였고 글 솜씨가 뛰어났다. 이렇게 執權者의 官吏任用政策과 문학애호로 인하여 당시 정치중심지인 鄴城에는 수많은 문사들이 모여들어 문학의 중심지인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특히 조씨 삼부자는 건안 문학을 唱導하고 高揚시킨 주인공들로서 劉勰의 《文心雕龍·詩序篇》에서도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獻帝가 播遷하자 문학은 바람 속 쑥대처럼 떠돌았다. 建安 末年에 이르러 천하는 안정을 찾게 되었다. 魏武帝는 上王의 높은 지위에 앉아서 詩文을 좋아했고, 文帝는 太子의 막중한 자리에서 辭賦의 名手였으며, 陳思王은 公子의 호화스런 자리에 있으면서, 붓을 들면 珠玉같은 걸작을 썼다. 이들은 모두 재주를 체득하고 있었으므로 천하의 俊才들이 雲集하였다."

(自獻帝播遷, 文學蓬轉, 建安之末, 區宇方輯, 魏武以上王之尊, 雅愛詩章文帝副君之重, 妙善辭賦, 陳王以公子之豪, 下筆琳瑯, 並體貌英逸故俊才雲蒸).[28]

라고 하여 建安文學에 대한 조씨 삼부자의 주도적 역할을 나타내었고, 따라 수 없이 창작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창작활동은 後漢에서 魏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흥왕족으로 부상한 조씨 일가의 宮廷을 배경으로 문인들이 모여 각기 자기의 이름을 걸고 창작활동을 벌였다. 그러므로 前시대의 詩風과 새로운 시대의 詩風이 작자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없이 창작되었을 것이다.

---

28) 崔信浩譯註, 《文心雕龍》, 玄岩社, 서울, 1975.

그럼 이들이 활동했던 건안문학의 성격을 살펴보면, 건안 문인들은 고대문학의 사실주의 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의 현실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그 내용은 더욱 풍부해졌다. 당시의 혼란된 상황과 분열된 현실의 얼룩진 건안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작품의 창작에 심각하게 반영되었다. 당시 건안문학에 대하여 劉勰은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

"그들의 詩文을 살펴보면 慷慨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진실로 오랜 동안의 난리로 風氣는 쇠약하고 인심은 불만으로 쌓인데다가, 그들의 사상과 감정이 깊어지고 筆力이 왕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학의 내용은 慷慨하고 기백이 충만하다.
(觀其詩文, 雅好慷慨, 良由世積亂離, 風衰俗怨, 幷志深而筆長, 故梗概而多氣也)[29]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과 문학과의 상관성을 잘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 새로운 가치 발견도 또한 일어났다.

즉 문학은 전통적인 功利主義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낭만적인 경향으로 발전해나가 文壇은 생기에 차고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의 문학정신이 발로되기 시작했다.[30]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조식의 개인적 환경이 그의 문학적 배경에 크게 작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3 절. 曹植의 文學觀

漢은 武帝 때부터 儒學을 官學으로 채택한 이래로 그 영향은 정치, 사회, 학술등 각 방면으로 미쳤으니 儒家의 사상은 漢代 400여년 동안 독보적인 위치에 군림해 있었다.

儒家의 문학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여 문학은 반드시 논리와 도덕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공용을 지녀야 하는 것이라 간주하였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작품과 개인의 환상과 감정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漢末에 이르러 혼란스러운 세상을 맞아

---

29) 劉勰, 前揭書 · 〈時序〉.
30) 金學主, 丁範鎭.《中國文學史》, 汎學圖書, 서울, 1979, p.109.

유가사상이 衰微하여 지자 儒家의 문학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상황과 개인의 사상을 담은 작품들이 그 동안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시대에 老莊思想이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이다. 노장철학은 현실의 문물제도를 부정하고 원시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으니, 의미상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반항하였으며, 행동상으로 소극적으로 현실을 도피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소극적인 현실도피사상이 신선세계에의 동경, 비현실 세계에서의 逍遙등으로 그들의 작품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魏晋이후 주요한 흐름이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建安時代에 그 동안의 文學觀이 크게 변하게 된다. 이때부터 문학에 대한 자주성을 가지고 문학을 논하게 되었는데, 漢代의 公用主義 문학에서 個人主義로, 다시 六朝에 와서는 浪漫主義로 변천하였다[31].

이러한 문학관의 변동과정에 건안 시기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의 선두주자는 曹丕와 曹植형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 문학비평의 嚆矢라고 할 수 있는 曹丕의 《典論·論文》에 다음과 같이 문학을 평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무릇 문학이란 나라를 경륜하는 대업이요, 영원한 위업이다. 수명은 때가되면 다하고 영화는 그 육신에만 그친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한정이 있어 문학의 무궁함만 같지 못하다.

(蓋文章經國之大業, 不朽之成事. 年壽有時而盡, 榮樂止乎其身. 二者必至之常期, 未若文章之無窮).[32]

이처럼 문학을 不朽之成事, 文章之無窮을 주장하여 문학의 독립성과 문학자체의 不朽의 작용을 인식하였다. 曹植은 〈與楊德祖書〉라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나는 어려서 문장짓기를 좋아하여, 지금까지 이르러 25년이 되었소. 그리하여 금세의

---

31) 車相轅, 《中國古典文學評論史》, 汎學圖書, 서울, 1975, p. 78.
32) 曹丕, 《典論·論文》 《文選》 卷 51

작자들은 간략히 말할 수 있소."
(僕少小好爲文章, 迄至于今, 二十有五年矣, 然今世作者, 可略而言也)[33]

라고 하여,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같은 글에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덕이 없으나, 지위는 藩侯가 되니 서로 힘을 합하여 나라를 받들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永世의 功을 세우고 金石의 功을 남기기를 바라니, 어찌 헛되이 글로서 공을 삼고 辭賦로써 군자가 될 것인가? 만약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道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여러 관리의 實錄을 수집하고, 時俗의 得失을 분명히 하며, 仁義의 표준을 정하여 一家를 이룰 것이다."
(吾雖薄德, 位爲藩侯, 猶庶幾戮力上國, 流惠下民, 建永世之業, 留金石之功, 豈徒以翰墨爲勳績, 辭賦爲君子哉. 若吾志未果, 吾道不行, 則將采庶官之實錄, 辯時俗之得失, 定仁義之衷, 成一家之言.)[3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의 최대의 포부는 功을 세우는 것이다. 이 글의 내용에는 문장에 뜻을 두기는 하나 일차적인 것은 아니고 최후의 수단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는 문학도 사람을 不朽케 한다고 믿었다. 결국 훗날 정치적으로는 功을 못 이루었으나 문학으로서 그는 大業을 이루었다.

이러한 그의 문학의 태도는 前代의 문인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民間文學에 대한 視角도 그는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학술적인 서적이나 역사서적을 우선시하고 辭賦나 문학을 경시하는 前代의 전통이 建安시기에 이들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활동은 선두에 서 있었다.

"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반드시 취할만한 점이있고, 수레채를 두드리는 노래에도

33) 趙幼文, 前揭書.
34) 上同

風 · 雅가 있으며 匹夫의 생각도 쉽게 저버릴게 아니다.
(大街談巷說必有可采, 擊轅之歌有應風雅, 匹夫之思未易輕棄).[35]

그 자신이 이미 民間文學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樂府나 民間歌謠를 사랑하였으며, 또한 민간문학의 광범위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였다. 건안 시기에는 이러한 민간문학에 대해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통속적인 문학을 보수적인 구계층의 문인들은 반대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경향의 선두에서 當代의 문학을 이끌어갔다.

그러면 조식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문학활동을 하였을까? 그는 문학활동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다.

" 무릇 文章의 어려움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옛날의 君子도 역시 이에 괴로워하였다. 집집마다 천리마가 있으면 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한 자나 되는 玉을 품고 있으면 和氏의 玉도 귀함이 없는 것이다."
(夫文章之難, 非獨今也, 古之君子, 猶亦病者, 家有千里驥而不珍焉, 人懷盈尺, 和氏無貴矣).[3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처럼 문학활동의 어려움을 드러내었으며, 또한 어려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與楊德祖書〉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저술은 단점이 없을 수 없다. 나는 일찍이 문장을 조사하여 바로 잡기를 좋아하였는데, 좋지 아니한 곳이 있으면 마땅히 바로 고친다."
(世人之著述, 不能無病. 僕嘗好譏彈其文, 有不善者, 應時改正).[37]

결점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

35) 趙幼文, 前揭書, p. 154.
36) 上同, 〈與吳季重書〉, p. 142 ,
37) 上同, p. 153

"그러므로 군자의 문장은 高山처럼 근엄해야하며,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광대해야 한다. 내용이 소박하기는 가을 쑥과 같고, 아름답기는 봄꽃 같아야 한다. 내용이 넓고 형식이 빛나면 雅頌과 함께 高下를 다툴만 하다."
(故君子之作也, 儼乎若高山, 勃乎若浮雲, 質素也如秋蓬, 摛藻也如春葩, 汎乎洋洋, 光乎皜皜, 與雅頌爭流可也).[38]

그의 이러한 標準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취적이었고, 이렇게 글을 깎고 다듬는 태도가 조식에 의해 제창되자 당시의 많은 문인들이 이를 따랐고, 후대문인들의 문학활동에 결정적 계기를 주었으며, 그의 문학은 당시로는 독특한 성격과 풍격을 지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8) 上同, 〈前錄自序〉 p. 434.

第 Ⅲ 章. 曹植 樂府詩의 淵源과 風格

제 1 절. 淵源

조식은 漢代 이전의 經傳文學에서 魏晉代의 純文學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교량적인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조식의 시를 분석해보면 建安詩壇 공통의 詩風을 풍기면서 또한 자신의 독특한 詩風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처럼 조식이 문학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거둔 중요한 요인은, 그가 前代文學의 우수한 전통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있다.

鍾嶸은 詩品에서 조식의 시가 《詩經·國風》에서 연원함을 최초로 언급하였다[39]. 또한 黃節은 《曹子建 詩注》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陳思王은 國風을 변화시키고, 樂府의 기묘함을 발휘하고, 屈宋의 辭를 구사하고, 揚雄, 司馬相如의 賦를 분석하여 詩를 지었는데, 六朝이전에는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陳王本國風之變, 發樂府之奇, 驅屈宋之辭, 析揚馬之賦而爲詩, 六代以前莫大乎陳王矣).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볼 때 조식 문학의 淵源을 고찰해 보면, 그 淵源이 詩經, 楚辭, 樂府, 古詩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章에서는 조식 악부시에 영향을 끼친 詩經, 楚辭, 樂府, 古詩등이 어떻게 조식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詩經

詩經은 중국최초의 詩歌選集으로서 중국문학의 鼻祖로 일컬어지고 있다. 詩經은 공자에 의해 정리되고, 한대의 사회윤리였던 유가의 최고 경전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문인

39) 鍾嶸 《詩品》 卷上 : 「子建詩其源出於國風」

들은 시경의 공부가 필수였을 것이다. 시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간 서정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름다운 여인이 화려한 閨房에서 외로이 떠나간 님을 그리는 애절한 抒情을 노래한 閨情詩가 많이보인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心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있다[40]. 曹植 또한 시경을 공부하였을 것이고, 시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음을 그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있다. 내용 면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보면, 당시 사회에서의 흔히 일어나는 봉건예교에 억압받은 부인들의 상황을 나타낸 시가 있는데, 〈邶風·谷風篇〉[41]에 남편에게 버림받아 怨望을 노래하는 시가 있는데, 조식의 악부에 역시 비슷한 예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浮萍篇〉

「在昔蒙恩惠　　지난날 그대의 사랑을 받아
和樂如瑟琴　　금슬처럼 즐거웠다네
何意今摧頹　　지금은 어찌하여 그마음 틀어져
曠若商與參 」　　商과參처럼 멀리 떨어져 갔는가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種葛篇〉

「佳人懷異心　　님께선 딴 마음 품어
恩紀曠不接　　정은 끊어진지 오래되고
我情遂抑沉」　　내마음 답답하고 침통하도다

〈七哀〉

「君行踰十年　　님 떠난 지 10여 년
孤妾常獨樓」　　외로운 저는 홀로 누대에 올랐다네

〈棄婦詩〉

---

40) 金學主,《中國古代文學史》〈詩經篇〉, 民音社, p, 41.
41) 朱熹,《詩集傳》, 〈谷風〉 註 : 「婦人爲夫所棄 故作此詩 以敍其悲怨之情」

「拊心長歎息　　가슴 쓸어내리며 긴 탄식하느니
無子當歸寧　　자식이 없으면 소박을 맞는다네
有子月經天　　자식이 있으면 하늘에 달과 같고
無子若流星」　　자식이 없으면 유성과 같다네

이와 같이 규방에서의 원망을 노래한 시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鄘風 · 相鼠篇〉[42]의 사회적인 禮와 道理를 표현한 說理類를 노래한 작품도 보이는데 그 예를 살펴보자.

〈薤露行〉
「鱗介尊神龍　　한갖 물고기도 龍을 받들고
走獸宗麒麟　　짐승들은 기린을 섬기니
蟲獸猶知德　　벌레와 짐승도 덕을 알거늘
何況於士人」　　하물며 선비들 임에야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怨歌行〉
「爲君卽不易　　임금노릇하기 쉽지 않고
爲臣良獨難」　　신하 노릇도 어렵도다

〈美女篇〉
「佳人慕高義　　미인은 고아한 뜻을 지닌 선비를 흠모하나
求賢良獨難」　　어진 선비는 진실로 얻기 어렵네

〈惟漢行〉
「行仁章以瑞　　어짐을 행하여, 상서로움을 밝히고
變故誡驕盈」　　재난으로써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네

42) 上同, 〈相鼠〉 註 : 「人而無儀, 卽其不死亦何爲哉」

等과 같이 이러한 句들이 나타낸 것처럼 說理적이고 雅한 풍격이 조식의 악부시에서 그러한 例를 찾을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의 연원을 살펴보면 시경의 구성 형식상 대표적으로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頂眞法이다. 이러한 수사법은 한 句의 結尾를 다음 句의 起頭에 사용하거나, 句와 句사이에 사용하는 수법이다[43]. 이러한 수사법이 나타난 〈大雅·生民篇〉 「旣醉」를 例로 들어보자.

朋反收攝, 攝以**威儀**. (四章末句)
威儀孔時, 君子有孝子. (五章首句)
孝子不匱, 永錫爾**類**. (五章末句)
其類維何, 室家之壺. (六章首句)
君子萬年, 永錫作**胤**. (六章末句)
其胤維何, 天被爾**祿**. (七章首句)
君子萬年, 景命**有僊**. (七章末句)
其僊維何, 釐爾女士. (八章首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와 같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수법을 조식은 자신의 시가에 응용을 잘하여 그의 시가 풍격을 높였다. 그의 악부시에 특히 그러한 수법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例를 살펴보자.

「見鴈自投**羅**, **羅**家得雀喜」 〈野田黃雀行〉
「黃雀得飛**飛**, **飛**飛摩蒼天」 〈野田黃雀行〉
「拊翼以悲**鳴**, **悲鳴**夫何爲」 〈棄婦篇〉
「璀采有**光榮**, **光榮**集流離」 〈棄婦篇〉
「吾欲竟**此曲**, **此曲**悲且長」 〈怨歌行〉
「長逝入**君懷**, **君懷**良不開」 〈七哀〉

43) 唐松波, 《漢語修辭格大辭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北京, 1989, p. 345.

等의 句가있다. 조식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상 두 句를 연결하여 반복된 리듬을 사용하여 詩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와 같이 조식의 악부시는 시경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영향을 받아 정통문학인 詩經을 계승하고 그의 문학이 시경에 근원함을 알 수 있다.

2. 楚辭

조식의 악부시중 특히 遊仙詩는 屈原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나타난다[44].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인생역정이 굴원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굴원의 愛國忠情과 고귀한 인품은 조식의 憂國愛民의 사상과 진취적인 기질의 형성과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며, 조식의 많은 작품 중 애국충정을 노래 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굴원은 현세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극복하고 정신의 자유와 해탈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사상이 그의 작품 遠遊, 離騷 등에 나타나있다. 屈原의 영향을 받은 조식의 유선시 五遊詠을 例로 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九州不足步　願得凌雲翔　〈五遊〉
思九州之博大兮, 豈唯是其有女　〈離騷〉

逍遙六紘外　遊目歷遐荒　〈五遊〉
卿仿佯而**逍遙**兮, 永歷年而成　〈遠遊〉

華蓋紛**晻藹**　六龍仰天驤　〈五遊〉
揚雲霓之**晻藹**兮, 鳴玉鸞之啾啾　〈離騷〉

曜靈未移景　**倏忽**造吳蒼　〈五遊〉
神**倏忽**而不反兮, 形枯槁而獨留　〈遠遊〉

---

44)《楚辭》 王逸注, : 「遊仙詩作如白屈原, …, 子建遊仙, 五遊, 遠遊諸篇 則尤極意模倣屈原者也」.

閶闔啓丹扉　雙闕曜朱光　〈五遊〉
命天閽其開關兮, 排**閶闔**而望予　〈遠遊〉

徘徊文昌殿　登陟**太微**堂　〈五遊〉
召豊隆使先導兮, 問**太微**之所居　〈遠遊〉
帶我瓊瑤佩　漱我**沆瀣**漿　〈五遊〉
餐六氣而飮**沆瀣**兮, 漱正陽而含朝霞　〈遠遊〉

踟躕玩靈芝　**徙倚**弄華芳　〈五遊〉
步**徙倚**而遙思兮, 怊惝怳而乘懷　〈遠遊〉

王子奉仙樂　美門進寄方　〈五遊〉
見王子而宿之兮, 審壽汽之和德　〈遠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와 같이 五遊詠은 굴원의 遠遊, 離騷 등에서 시어와 표현 면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桂之樹行, 升天行, 仙人篇, 遊仙詩 等 또한 모두 屈原의 遠遊와 내용 면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45]. 조식은 굴원이 이러한 시가창작에서 보여준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당시 建安詩壇이 《詩經》과 《楚辭》를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조식의 樂府詩중 특히 유선시는 屈原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古詩

古詩는 《文選》 《玉臺新詠》 《古文苑》등에 여러 수가 실려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文選에 실려있는 古詩十九首이다. 이 작품들은 대다수가 漢代의 무명씨

45) 余冠英, 《三曹詩選》,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9, p. 64.
余冠英은 五遊가 樂府詩集 雜曲歌辭에 속해있고, 五遊, 遊仙, 遠遊 等이 楚辭·遠遊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들의 작품인데, 그 작품의 품격이 아주 훌륭하여 후대인들이 많은 評을 하였다. 劉勰은 《文心雕龍·明詩》편에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 구성과 문장을 보면 솔직하면서도 야하지 않고, 완곡하게 사물을 묘사하여 감동이 되도록 서정이 절실하니, 실로 오언시의 으뜸이된다."
(觀其結體散文, 直而不野, 婉轉附物, 怊悵切情, 實五言之冠冕也.)[46]
라고 칭송하였으며, 鍾嶸은 《詩品》에서 上品에 놓은 다음 말하기를

"문장이 따스하면서도 아름답고, 뜻이 슬프면서도 심원하며, 마음을 놀래키고 넋을 움직이니, 거의 한 글자가 천금의 값이 있다고 할만하다."
(文溫以麗, 意悲而遠, 驚心動魄, 可謂幾乎一字千金)[47]

이렇듯 뛰어난 고시는 건안시기에 형식상 오언의 골격을 뛰어넘어 오언시의 금자탑을 이루었으며, 曹植은 내용 면에서 그의 樂府詩에 古詩十九首의 생명력 넘치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자신의 작품에 삽입 시켰고, 형식상으로는 古詩十九首의 시어를 전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例가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 古詩十九首에 근거한 曹植樂府의 例를 살펴보자.

「明月照**高樓**, 流光正徘徊」 〈七哀〉
「西北有**高樓**, 上與浮雲齊」 〈古詩 五〉

「上有愁思婦, **悲歎有餘哀**」 〈七哀〉
「一彈再三歎, **慷慨有餘哀**」 〈古詩 五〉

「附觀五嶽間, **人生如寄居**」 〈仙人篇〉
「**人生忽如寄**, 壽無金石固」 〈古詩 十三〉

---

46) 劉勰, 前揭書.
47) 鍾嶸, 前揭書.

「慷慨有餘音, 要妙悲且淸」 〈棄婦篇〉
「一彈再三歎, 慷慨有餘哀」 〈古詩 五〉

「逍遙於前庭, 踟躕還入房」 〈棄婦篇〉
「引領還入房, 淚下沾裳衣」 〈古詩 十九〉

「散匽造新衣, 裁縫紈與素」 〈浮萍篇〉
「不如飮美酒, 被服紈與素」 〈古詩 十三〉

「人居一世間, 忽若風吹塵」 〈薤露行〉
「人生奇一世, 奄忽若飇塵」 〈古詩 四〉

「人生不滿百, 戚戚少歡娛」 〈遊仙篇〉
「生年不滿百, 常懷千歲憂」 〈古詩 十五〉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行行將復行, 去去適西秦」 〈門有萬里客行〉
「行行重行行, 與君生別離」 〈古詩 一〉

위와같이 서로 대조하여 살펴보면 서로 유사한 면이 많은데, 내용과 형식면에서 조식이 古詩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조식이 자주쓰는 詩語 중에 慷慨, 悲風, 願爲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古詩에서 詩語를 빌어다가 쓰는 경우가 특이 하다고 볼 수 있다. 고시를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의 원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48], 明代의 胡應麟은《詩藪》에서 子建의 詩는 전적으로 古詩十九首의 意象을 모방하였다. 라고 평하였다[49].

48) 李桂桂.《古詩十九首研究》, 瑞文當, 서울, 1976, p. 3.
49) 胡應麟,《詩藪》 內篇 卷二. 河北師範學院中文系, 三曹資料匯編, 中華書局, 北京, 1980 「子建雜詩, 全法十九首意象, … 」 .

4. 樂府民歌

조식 악부시의 가장 큰 영향은 漢代의 民間 악부시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詩歌의 반 이상이 樂府民歌이다. 한대의 악부는 建安시의 母胎로서 樂府體裁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樂府詩史에서 조식의 위치는 한대 이후에 악부의 律源이요, 악부의 기풍에 변화를 일으킨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詩歌는 후대 시인에게 모범이 되었다[50].

조식이 악부시를 많이 창작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건안 시대의 통치자인 曹操가 악부를 특히 좋아하여 그의 시가 대부분이 악부시인 점을 살펴볼 때, 당시의 통치계급은 德政을 宣揚하고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악부의 형식을 채용하여 새로운 歌詞와 樂曲을 지어 가무를 즐기는 것을 비교적 중시하였고, 통치집단의 提唱으로 민간악부는 건안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의 문단을 이끌던 조식은 악부시의 창작에 특별히 주의하였을 것이다.

조식은 현실의 암울한 상황을 대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악부민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악부의 형식으로 遊子, 征婦의 思想感情을 묘사하고, 懷才不遇의 悲憤을 吐露하였다. 또한 악부민가의 深厚하고, 剛健하며, 素朴한 詩風은 조식의 詩歌가 氣高한 風格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漢代 民間樂府와 曹植의 樂府詩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의 유사점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고, 民間樂府가 曹植의 詩歌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서로의 例로서 확인하여 본다.

「王子**奉仙藥**, 淡門進奇方」　　〈五遊詠〉
「**仙人王喬, 奉藥一丸**」　　〈善哉行〉

「服食享遐紀, **延壽保無疆**」　　〈五遊詠〉
「主人服此藥, **延年壽命長**」　　〈長歌行〉

---

50) 丁晏 《曹集全評》, 〈陳思王詩鈔原序〉
「詩自三百篇十九首以來, … , 自推子建, 洵詩人之冠冕, 樂府之律源也」.

「**玉樹扶道生**, 白虎夾門楹」　〈仙人篇〉
「**桂樹夾道生**, 青龍對伏趺」　〈步出夏門行〉

「玉樽盈桂酒, **河伯出鯉魚**」　〈仙人篇〉
「天公出美酒, **河伯出鯉魚**」　〈艷歌行〉

「**人生不滿百**, 戚戚少歡娛」　〈遊仙篇〉
「**人生不滿百**, 常懷千歲憂」　〈西門行〉

「青樓臨大路, **高門結重關**」　〈美女篇〉
「妾當守空房, **高門不重關**」　〈艷歌何嘗行〉
「西登玉堂, 金樓複道」　〈飛龍篇〉
「小復前行玉堂, 未心懷流還傳」　〈董逃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乘彼**白鹿**, 手翳芝草」　〈飛龍篇〉
「仙人騎**白鹿**, 髮短耳何長」　〈長歌行〉

「**要道甚省不煩**」　〈桂之樹行〉
「**要道不煩**」　〈善哉行〉　等이 있다.

이처럼 조식의 시가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한대악부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曹植은 많은 樂府를 지었는데, 古樂府를 改作하여 악부의 篇幅을 넓히고 악부의 표현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식 악부시의 연원을 살펴보면, 詩經에서 形式, 意象, 詞 等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楚辭에서 屈原의 飄逸한 風格에 영향을 받아 조식의 意象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古詩十九首에서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적 표현과 사상을 이어 받았으며, 漢代民間樂府에서는 서민등의 質朴하고 대담한 氣風과 風格을 계승하였다.

제 2 절. 風格

西漢의 賦작가들이 단순히 사물의 외형에 모습의 치중하였고, 東漢의 시인들이 抒情과 說理의 결합에만 치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보면 曹植, 建安七子等, 당시의 문인들은 개성을 표현하고, 才氣를 창작의 근본으로 삼고 언어의 형식이나 표현의 기교면에서도 주의를 기우려 새로운 풍격을 이루었다. 즉, 감정이 풍부하고 세밀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과 이치를 표현하는 語句, 修辭등의 技法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동시에 다양한 감정은 시의 風格에 등에 나타나 사람마다 차이가 생긴다. 설사 한사람의 작품이라도 다른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그 風格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먼저 風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유협은 그의 저서에서 風의 의미를 잘 표현하여 놓았다. 《文心雕龍》의 <風骨>편은 문학영역에서 사용되는 '風'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해석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전문학이론 가운데 풍골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로서는 유일한 글이기도 하다.

유협의 글에 의거해 風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詩는 六義로 總括되는데 風은 그 중에 첫째이다. 風은 敎化의 근원이며, 內面世界의 表象이다. 그러므로 감동에서 우러난 情緖의 서술은 風에서 시작하며, 修辭에 대한 深思로는 무엇보다도 骨이 선행 되어야한다. 修辭에서 骨의 중요성은 마치 人體에서 骨格의 형성과 같으며 情緖가 風을 含有한 것은 마치 形骸가 精氣를 함유한 것과 같다. 언어의 결합이 端直하면 문장의 骨은 성취되며, 작가의 의기가 駿爽하면 문장의 風은 맑아질 것이다."[51]

---

51) 劉勰, 前揭書, 〈風骨篇〉. 「詩總六義, 風冠其首, 斯乃化感之本源, 志氣之符契也, 是以怊悵述情, 必始乎風, 沈吟鋪辭, 莫先於骨, 故辭之待骨, 如體之樹骸, 情之含風, 猶形之包氣, 結言端直, 則文骨成焉, 意氣駿爽, 則文風淸焉」.

라고 평하였으며, 風의 형태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

《毛詩·序》에서는 시의 감화와 교화작용을 말하고 있다.
(風, 風也, 敎也., 風之動之, 敎以化之)

이는 劉勰이 말하는 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유협은 '詩總六義 風冠其首'라고 말하고 있다. 유협은 작품의 감화력은 작자의 사상 감정과 생명력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작품에 나타나는 '風'은 '化感之本源'일 뿐만 아니라 '志氣之符契'라고 말하고 있다.

劉勰은 문학작품이 작자의 사상 감정과 생명력을 외면화 한 것이라고 보았고,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감동력 안에는 정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述情, 必始乎風' '深乎風者, 述情必顯'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학작품에 작자의 표현하고자 하는 정감이 뚜렷이 들어 나는 예술성취가 높은 작품은 반드시 '風'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格은 品等 내지 종류를 의미하는 말이다. 사전적 정의는 지극히 다양한데, 우선 許愼의 『說文解字』에 보면 "木長貌", 즉 나무가 긴 모양에서 따온 글자이다. 先秦시대에 長木은 형량의 척도에 필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격식이나 규격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사물의 장단을 계량하는 뜻이니 이에서 법도나 준칙의 뜻으로 延伸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品格, 格式, 格調등의 숙어로 되어 틀이 잡혀있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風과 格이 합쳐진 風格이란 무엇인가?

風格이란 "美의 種類"라고 할 수 있다. 風은 또한 風神, 風采, 風姿 등의 숙어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전체에서 어울려져 나오는 美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의 風은 "丰"자와 통용되는데 風은 본래 면모의 풍만함을 나타내는데 쓰인 말이다. 그래서 風神, 風采, 風姿는 丰神, 丰采, 丰姿로도 쓴다. 風格이란 말은 風神, 風采등의 뜻과 연결되어 처음에는 사람의 외모로 풍겨 내는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쓰였고, 漢代이래로 그러한 뜻에서 부연되어

風格은 인물을 品評하는데 쓰였고, 그 종류의 구분을 시도하면서 詩文, 書畵를 비롯한 모든 예술에 두루 적용하게 되었다.[52] 이처럼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과 환경요인을 표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風格은 형성요인을 살펴보면, "風格은 時代環境, 民族, 階級 等을 배경으로 한 客觀的 要素와 作者의 生活環境, 思想, 傳統藝術의 영향, 心理功能을 배경으로 하는 主觀的 要素가 융합되어 형성된다.[53]

그러므로 작품의 風格을 통하여 작품을 연구한다는 것은 작자의 시대적 상황과 작자의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등을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劉勰은 《文心雕龍·德性篇》에서 작가의 作風을 八體[54] 로 분류하였고, 唐 司空圖는 二十四詩品[55]으로 詩의 風格을 분류하여 놓았다. 梁代의 鍾嶸은《詩品》에서 曹植을 평하기를, 「骨氣가 기발하면서도 고상하다. (骨氣奇高)」「수사는 화려하고 풍부하다. (辭采華茂)」「고상한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 두 가지를 겸하였다. (情兼雅怨)」「體裁는 아름다운 형식과 질박함이 조화를 이루었다. (體被文質)」라고 설명하였으며, 胡應麟은 曹植의 風格을 "거침이 없이 제멋대로이다. (縱逸)"[56]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조식의 風格이 다양한 것은 그의 다양한 인생 경험에 의한 것인데 그의 人生歷程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크게 나누어 구분하여 보면 전반기는 화려한 공자로서의 삶으로서 그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상적으로 보면 儒敎의 功利主義적인 전아한 면이 드러난다. 후반기는 부친인 曹操의 죽음과 왕위 계승에 패배하여 불우한 생을 보내는데, 이 시기는 시대의 怨望과 悲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末年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豪放하고 飄逸하는 사상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인생 역정을 놓고 볼 때 그의 작품 또한 그의 생이 대변되는 風格이 드러나며 또한 변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鍾嶸의 《詩品》 評과 司空圖의 風格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조식의 風格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風格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해보면 절대적

---

52) 申柱璟,《中國詩論》, 서울大學校出版部, p. 94.
53) 吳功正,《文學風格七講》, 上海文藝出版社, 上海, 1983, p. 11.
54) 典雅, 遠奧, 精約, 顯附, 繁縟, 壯麗, 新奇, 輕靡.
55) 1.雄渾 2.沖潛 3.纖穠 4.沈着. 5.高古 6.典雅. 7.洗練. 8.勁健. 9.綺麗. 10.自然. 11.豪放 12.含蓄 13.精神 14.縝密 15.疎野 16.淸奇 17.委曲 18.實境 19.悲慨 20.形容 21.超詣 22.飄逸 23.曠達 24.流動.
56) 胡應麟,《詩藪》〈內篇〉 卷1.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曹操의 집권시기의 典雅, 魏文帝 시기의 幽怨과 悲憤, 明帝 초기의 豪放, 明帝 후기의 飄逸한 風格으로 크게 구분하여 보았다. 이러한 풍격이 형성된 구체적인 배경을 各節에서 내용과 함께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1. 典雅

典雅한 風格이란 劉勰의 《文心雕龍·德性篇》에 의하면 「전아란 경전을 용해하여 법식으로 삼고, 유가와 수레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典雅者, 鎔式經誥, 方軌儒門者也).[57]라고 하였다.

雅란 무엇인가? 雅는 正, 즉 바르다는 뜻이다. 雅는 본래 詩經 詩의 한 부류로 正樂의 노래인데, 大小의 구별이있어 饗宴때 쓰여지던 음악을 小雅라고 하고 會朝때 쓰이던 음악을 大雅라했다. 大雅에는 周王室의 일에 관계되는 詩가 많고, 小雅에는 君臣들과 관계되는 詩가 많으며, 文體는 大雅가 小雅에 비하여 더 端雅하다.[58] 그러나 이 中에도 風體의 思婦, 또는 怨世하는 내용의 詩가 끼어있어 大小의 구별이 분명치 못한데, 이러한 부류의 詩는 앞의 正大雅, 正小雅에 대해 變大雅, 變小雅로 불린다. 그러나 曹植詩가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雅怨을 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變大雅, 變小雅는 다수의 怨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조식 시의 雅는 주로 正大雅, 正小雅와 同類의 내용과 감정을 말하며 國風의 敎化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의 雅詩는 宮中의 朝會나, 饗宴, 君臣들간의 일을 읊은. 바르고 壯重한 내용과 端雅한 형식을 지니는 詩라고 볼 수 있다.[59]

曹植이 이러한 風格을 형성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謝靈運이 말하기를 "그는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마음껏 즐기며 놀았다".[60]라고 하였다. 이때는 부친인 曹操가 집권시기로 근심없는 화려한 공자의 시기로서 생활이 안정되었고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 부친의 寵愛를 받으며 당대의 문인들과 交遊하며 창작활동을 하였던 시기이다. 典雅한 風格의 작품으로는 名都篇, 箜篌引, 惟漢行, 鬪鷄, 豫章行, 其2, 丹霞蔽日行, 怨歌行, 君子行, 當事君

57) 劉勰, 《前揭書》. 「典雅者, 鎔式經誥, 方軌儒門者也」.
58) 金學主, 《中國文學槪論》, 新雅社 1996, p. 81.
59) 李雅英, 《曹植詩研究》, 全南大 碩士學位論文, 1987, p. 14.
60) 《宋書·謝靈運傳》, 〈謝靈運擬魏太子鄴中集平原侯植詩序〉 「公子不及世事, 但美遨遊」

行, 盤石篇, 等, 11首가 전한다. 이들은 인생 전반기의 화려한 遊宴의 즐거움과, 儒家思想을 바탕으로하는 說理類의 작품이 主를 이루고 있다. 典雅한 風格의 작품을 遊宴類과 說理類의 두 가지로 나누어 내용을 분석하여 考察 하고자 한다.

1) 遊宴

遊宴類의 작품으로는 名都篇, 箜篌引, 鬪鷄篇, 等이 전하는데 먼저 名都篇을 살펴보자.

名都篇[61]

①名都多妖女	도시에는 아름다운 기녀도 많고
②京洛出少年	京洛에는 뛰어난 少年도 많다네
③寶劍直千金	보검은 천금에 해당하고
④被服麗且鮮	복장은 화려하고 빛깔도 좋네
⑤鬪鷄東郊道	동쪽 교외엔 닭 싸움이오
⑥走馬長楸間	긴 오동나무 숲엔 말 달리기 하네
⑦馳騁未能半	말 달리기 시작하니
⑧雙兎過我前	한 쌍의 토끼가 내 앞을 지나네
⑨攬弓接鳴鏑	활잡고 화살 뽑아
⑩長驅上南山	말달려 남산에 오르네
⑪左挽因右發	좌로 잡아당기고 右로 쏘니
⑫一縱兩禽連	한발에 두 마리의 토끼로다
⑬餘巧未及展	남은 재주 다 펼치지도 못했으니
⑭仰手接飛鳶	손을 들어 솔개를 쏘네
⑮觀者咸稱善	구경꾼들 모두 잘 한다고 칭찬하며
⑯衆工歸我妍	사냥꾼들 나에게 찬사를 보내네
⑰我歸宴平樂	平樂觀에 돌아와 연회를 베푸니

61) 《樂府詩集》, 〈雜曲歌 · 齊瑟行〉 歌辭에 속해있다.

⑱美酒斗十千　　좋은 술은 한말에 만근이라네
⑲膾鯉臛胎鰕　　잉어를 회치고, 새우를 바르며
⑳炮鼈炙熊蹯　　자라굽고, 곰 발바닥을 굽네
㉑鳴儔嘯匹侶　　친구 부르고 동료를 모으니
㉒列坐竟長筵　　긴자리에 열지어 앉았도다
㉓連翩擊鞠壤　　이어서 펼쳐지는 擊鞠과 擊壤놀이
㉔巧捷惟萬端　　교묘하고 민첩하기가 만 가지로다
㉕白日西南馳　　해가 남서쪽으로 치닫고
㉖光景不可攀　　흐르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도다
㉗雲散還城邑　　구름처럼 흩어져 성읍으로 돌아가고
㉘淸晨復來還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 오자구나

郭茂倩은 樂府詩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 시는 당시 사람들의 말타기와 활쏘기의 뛰어남과 遊獵의 즐거움에 빠져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다"62)
(此詩刺時人騎射之妙, 遊騁之樂, 而無憂國之心也)

胡國瑞도 이 詩는 귀족소년들이 時間과 精力을 遊戱, 遊宴 을 추구함에 소모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諷刺라고 보며, 詩의 마지막 四句는 당시의 曹植의 인생관이 나타나 있다.63) 라고 하였다. 이 詩의 내용을 분석 하여보면,

1~4句는 名都에 아름다운 妓女가 많고, 幽峽少年의 사치와 의복의 화려함을 나타내었고, 5~10句는 유협 소년들의 말 달리고 활을 쏘며 遊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1~16句는 소년의 뛰어난 활 솜씨와 그에 대한 뭇 사람들의 찬사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16句 「衆工歸我妍」의 我는 遊俠하는 소년의 모습을 통하여 曹植 자신의 모습을

62) 郭茂倩,《樂府詩集》, 第六十三卷.
63) 胡國瑞,《魏晉南北朝樂府詩史》, 上海文賦出版社, 上海, 1980, p. 16.

묘사 한것같다.

17~20句는 사냥 후에 平樂觀에서의 宴會때의 酒肴의 귀함과 풍성함을 나타내었다.

21~22句는 벗과 어울리는 즐거움. 23~24구는 宴會후에 펼쳐지는 각종의 遊戲의 모습이 묘사 되었다.

25~28句는 세월의 무상함과 헤어지며 다시 만나기를 바램을 노래했다.

鍾京鐸은 이 詩를 보고 評하기를,

"曹植이 이 詩를 짓게된 動機는 당시 사람들이 騎射遊騁의 즐거움에 빠져 憂國之心이 없음을 諷刺하는데 있으나, 이 詩의 내용이 曹植 자신의 소년시절의 생활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과 박진감이 있다"

(可能他做這篇詩的動機, 是在刺時人沈湎於騎射遊騁之樂, 而無憂國之心, 然而它的內容恰正是曹植自己少年生活的寫眞, 因此看來格外生動逼眞).[64]

이 詩의 제작 연대는 建安 연간으로 보고 있고, 조식의 형 曹丕가 아직 임금이 되기전으로, 曹植의 생활은 바로 公子의 호사스러운 생활이었다. 여기에서 名都는 아마도 그가 젊었을 때 생활했던 鄴城을 읊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鄴城에서의 귀공자들의 享樂생활이 이 詩에 잘 표현되어 있다. 都市의 귀공자들의 향락적 생활을 諷刺한 것으로서 鄴城의 귀공자들은 鬪鷄, 騎馬, 遊獵, 宴會 등을 즐기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그들의 재주를 사냥등의 娛樂에 썩힐 뿐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을 풍자한 시이다.

다음으로 箜篌引 을 보면

箜篌引[65]

①置酒高殿上　　높은 전각에 술상 차리고

②親友從我遊　　친한벗 나를 찾아 함께 노니네

64) 鍾京鐸, 《前揭書》 p. 301

65) 《樂府詩集》, 〈相和歌 · 瑟調曲〉 歌辭에 속해있다

③中廚辦豊膳　　부엌에선 풍성한 안주 장만
④烹羊宰肥牛　　양을 삶고 살찐 소를 잡네
⑤秦箏何慷慨　　秦箏소리 구슬피 울고
⑥齊瑟和且柔　　齊瑟 소리 조화롭고 부드럽다
⑦陽阿奏奇舞　　陽阿의 기묘한 춤 펼쳐지고
⑧京洛出名謳　　洛陽의 노랫가락 울려 퍼지네
⑨樂飮過三爵　　흥겹게 三杯를 돌리고
⑩緩帶傾庶羞　　허리띠 늦추고 산해진미 즐기네
⑪主稱千金壽　　주인이 千壽를 외치니
⑫賓奉萬年酬　　客들도 萬壽 應하네
⑬久要不可忘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지
⑭薄終義所尤　　가벼이 끊남은 의리가 아닌걸세
⑮謙謙君子德　　겸손함은 君子의 덕이나
⑯磐折何所求　　몸을 굽혀 무엇을 구하리요
⑰驚風飄白日　　낮동안 거센바람 몰아치고
⑱光景馳西流　　시간은 서쪽으로만 치닫네
⑲盛時不再來　　좋은 시절 다시오지 아니하고
⑳百年忽我遒　　한 평생도 홀연히 다 되어가네
㉑生存華屋處　　살아선 화려한 집에 살지만
㉒零落歸山丘　　죽어선 산언덕으로 돌아가네
㉓先民誰不死　　옛사람 그 누가 죽지 않았으랴
㉔知命復何憂　　천명을 안다면 무엇을 근심하리요

이 詩는 귀공자가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1~12句는 酒肴의 풍성함, 風樂과 歌舞의 화려함, 술을 마시고 獻酒의 즐거움과, 손님을 맞아 성대하게 잔치를 배풀고 즐기는 묘사하였다.

13~16句는 훗날까지 서로의 정을 잊지말고 의리를 지켜 君子의 도리를 지키자는 儒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家思想이 내포됨을 알 수 있다.

17~22句는 세월의 빠름을 한탄하고 인생의 덧 없음으로 歡樂의 끝을 묘사하였다.

23~24句는 생사의 도리를 儒家의 天命順應思想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부는 歡樂的인 인생을 묘사하고, 중반부에서는 순간적인 인간의 일생을 노래함으로서 詩意를 沈鬱하게 몰아 가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先民誰不死 知命復何憂」라 하여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생의 無常感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식시의 특징중에 하나이며, 시의 후반부로 갈수록 儒家思想이 나타나 이 시를 더욱 典雅하게 한다.

建安시대의 귀족문인들은 宴會를 열어 歌舞를 즐기고 詩賦를 和唱하는 것 이외에 각종 娛樂을 즐겼다. 鬪鷄란 娛樂을 曹植은 詩로 표현하였다.

鬪鷄篇[66]

①遊目極妙伎　　이리저리 보아도 묘기는 다하고
②淸聽厭宮商　　즐겨 듣던 음악도 실증이 나네
③主人寂無爲　　주인이 할 일 없어 적적해 하니
④衆賓進樂方　　객들이 재밋 거리를 제시하는구나
⑤長筵坐戲客　　긴자리엔 구경꾼들을 앉히고
⑥鬪鷄觀閒房　　넓은 방에서 닭싸움 이라네
⑦群雄正翁赫　　군웅들 당당하기만 하고
⑧雙翹自飛揚　　발돋음 하며 날뛰네
⑨揮羽激淸風　　날개 짓을 할 때마다 바람이 일고
⑩悍目發朱光　　부라린 눈에서 불똥이 튀네
⑪觜落輕毛散　　부리에 가벼운 깃털 떨어져 흩어지고
⑫嚴距往往傷　　날카로운 발톱에 상처 입네
⑬長鳴入靑雲　　긴 울음 소리 푸른 구름까지 닿을 듯

66) 《樂府詩集》, 〈雜曲歌辭〉에 속해있다.

⑭扇翼獨翱翔　　홀로 퍼덕이며 날뛰는구나
⑮願蒙貍膏助　　원컨대 貍膏를 발라
⑯常得擅此場　　항상 이 자리를 누릴 수 있기를

이 작품은 조식의 예리한 관찰력과 생동감있는 언어적 감각이 있는 작품이다.
이 詩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1~6句는 무료한 상황에서 鬪鷄가 벌어진 動機와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戱曲에서 解說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7~8句는 싸움에 나가기 전, 鬪鷄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9~12句는 두 마리의 닭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매우 생동감있게 그리고 있다.

13~14句는 승리후의 鬪鷄의 득의양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마지막 二句는 지금의 승리에 이어서 항상 승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曹植 자신의 願望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리한 관찰력으로 한 장면을 묘사한 작품은 前代에는 볼 수 없고 曹植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詩題를 등장시킨 것은 그의 문학적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고, 鬪鷄의 승리에 寄託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功業을 완성하고자 하는 願望을 드러내고, 장면묘사의 文體가 매우 힘차고 기백이 있으니, 당시 風流를 즐기고 豪俠적 氣槪를 지니고 있던 모습을 살펴 볼 수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說理類

설리류는 인생의 格言이나 敎訓, 慨歎[67]등 으로서, 난세에 살아 남기 위한 처세의 방법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훈적인 뜻이 담겨진 시가는, 대부분 유가사상이 나타나 있다. 설리류의 작품으로는 惟漢行, 豫章行, 其2, 丹霞蔽日行, 怨歌行, 君子行, 當事君行, 盤石篇, 等, 8首가 전한다.
먼저 惟漢行이란 詩를 보자.

67) 余冠英,《樂府詩選》 p. 8

惟漢行[68]

①太極定二儀	태극이 천·지를 정하니
②淸濁始以形	淸濁이 비로소 형성되었네
③ 三光照八極	三光이 온 天地를 비추니
④天道甚著明	天道가 분명히 드러나도다
⑤爲人立君長	사람들을 위하여 君長을 세우고
⑥欲以遂其生	그의 삶을 따르기를 바란다
⑦行仁章以瑞	어짐을 행하여, 상서로움을 밝히고
⑧變故誡驕盈	재난으로써 교만 해지는 것을 경계하네
⑨神高而聽卑	하늘은 높이 있으나, 낮은 곳의 것도 들으니
⑩報若響應聲	그 보답이 메아리와 같구나
⑪明主敬細微	어진 임금은 천한 자도 존중하나니
⑫ 三季昏天經	夏桀·殷紂·周幽는 天道에 어두웠네
⑬二皇稱至化	伏羲와 神農은 백성을 잘 다스렸다 하고
⑭盛哉唐虞庭	堯·舜의 조정에는 인재들이 가득찼네
⑮禹湯繼厥德	禹·湯 임금이 그 큰덕을 계승하고
⑯周亦致太平	周나라 역시 太平聖代 이루었네
⑰在昔懷帝京	옛적 황제 계신 서울이 생각나고
⑱日夕不敢寧	해 기울고 마음이 편치 않구나
⑲濟濟在公朝	朝廷에는 威嚴 있으니
⑳萬載馳其名	오래도록 그 이름 떨치리라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1~2句는 太極에서 天地를 창조하고 陰陽의 淸濁이 생겼다는 宇宙生成의 원리를 말하였고,

68) 《樂府詩集》, 〈相和歌辭〉에 속해있다

3~4句는 日.月.星이 온 천지를 비추어 하늘의 道가 나타남을 설명한다.

5~6句는 君長을 세우는 목적과 道理를 설명하고, 7~8句는 君長이 仁을 행하면 하늘이 感應하며 變故로서 君長의 교만함을 경계함을 설명한다.

9~10句는 하늘은 德과 惡을 모두 안다는 것을 말하며, 11~12句는 어진 임금의 현명함과 어리석은 임금의 우매함을 그렸으며, 13~16句는 역사에 모범이 되는 임금을 例로 君主의 도리를 나타냈으며, 曹植의 유교주의적인 사상이 나타난다.

17~20句는 君主를 잊지 못하는 정이 나타나 있는데, 曹植 자신의 심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시는 說理的이며 詠史的인 내용으로 古典에 근거를 두고 있다.

曹叡가 天災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頒佈하여 公卿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하였다. 曹植은 이에 격려받아 立功敎名의 宿願인 任用의 기회를 바랬다[69] 이러한 이유로 조식은 이 시를 作詩한 것으로 보인다. 儒敎사상을 토대로하여 그의 典雅한 風格이 잘 들어나는 작품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怨歌行[70]

①爲君卽不易	임금 노릇하기 쉽지 않고
②爲臣良獨難	신하 노릇도 어렵도다
③忠信事不顯	충성스럽고 신망스러운일 드러나지 않고
④乃有見疑患	의심을 사서 어려움을 당했네
⑤周公佐成王	周公이 성왕을 보좌하니
⑥金縢功不刊	金縢의 기록된공 사라지지 않아서라네
⑦推心輔王室	충심으로 왕실을 보좌했으나
⑧二叔反流言	二叔은 오히려 모함을했네
⑨待罪居東國	待罪하여 東國에 있을때

69) 趙幼文,《前揭書》,「曹叡因天災頒佈譴責自己的詔令, 要求公卿匡正違失. 因此激發曹植立功敎名的宿願, 期求獲得任用的機會」, p. 365.

70)《樂府詩集》,〈相和歌辭・楚調曲〉에 속해있다.

⑩泫涕常流連　　눈물 그칠 날이 없었다네
⑪皇靈大動變　　하늘이 크게 요동쳐
⑫震雷風且寒　　천둥치고 바람일어 추워지니
⑬拔樹偃秋稼　　큰 나무가 뽑히고 벼 쓰러져
⑭天威不可干　　하늘의 위엄은 당할 수 없었다네
⑮素服開金縢　　소복을 입고 금등을 열고서
⑯感悟求其端　　그 근본을 알고서야 깨달았네
⑰公旦事旣顯　　周公의 일이 분명히 들어나니
⑱成王乃哀歎　　成王은 슬퍼 탄식했네
⑲吾欲竟此曲　　나는 이 曲을 다하고자 하나
⑳此曲悲且長　　이 곡이 너무 슬프고 길기만 하구나
㉑今日樂相樂　　오늘의 즐거움 서로 나누며
㉒別後莫相忘　　이별 후에 서로를 잊지나 말자구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詩는 자신과 明帝의 관계를 周公과 成王의 관계와 대비시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자.

1~2句는 論語 子路篇의 「爲君難, 爲臣不易」句를 典故하여 君臣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3~4句는 자신의 충성심이 의심과 시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5~16句는 周公은 武王의 死後에 忠心으로 조카인 成王을 보좌하였으나, 管叔과 蔡叔의 모략을 당하였다. 그러나 다행이 金縢안에 단서가 있어서 成王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당시 조식은 조조의 사후에 형인 文帝의 핍박을 받았다. 文帝의 死後에도 明帝는 조식에게 역시 핍박을 가하였다. 이에 조식이 周公의 일로서 周公과 成王의 관계로서 자신과 明帝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17~18句는 明帝가 더 이상 流言蜚語를 믿지 말고 자신을 믿어 달라는 뜻을 나타냈다.

19~20句는 조식 자신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丁晏은 이 詩를 評하여 「문장의 뜻이 바르며, 陳思王 이외에 오로지 杜甫만이 이와같은 정성스러움이 있을 뿐이다. 이를 시의 正宗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은 가히 미칠 수가 없다.」[71] 라고하여 이 詩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 시는 당시 정치상의 骨肉相殘의 비극을 引用句와 典故를 빌어 조식 자신의 염원을 婉曲하게 표현하였으며 자신은 신하의 도리를 지킬 것이며, 유교주의적인 王道政治를 추구한다는 조식의 典雅한 風格이 婉曲하게 나타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 曹植의 典雅한 品格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조식의 전반기의 화려한 귀공자적인 삶과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화려한 문장과 진실된 마음이 표현되었고, 후반부에 가서도 그의 유교주의적인 정치사상은 유지되었다. 그의 인생의 전반기에 학습한 유교사상이 인생의 후반부까지 그를 입신양명하는 정치적 이상을 꿈꾸게 되며, 그의 시가 작품에 자주 그러한 사상이 들어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曹植의 典雅한 樂府詩는 그의 인생의 커다란 根幹이라고 할 수 있다.

2. 幽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怨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怨은 怨望, 怨恨 等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조식의 怨은 주로 國風의 怨恨之情과 小雅, 大雅 中의 怨의 성격을 내포하는 變小雅, 變大雅 等과 同類의 怨으로서, 行役, 親友, 救國, 懷人 等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있다.

조식의 怨의 風格은 어떠한가? 謝靈運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식은 세상일에 관여치 아니하고 즐겁게 놀았으나, 근심스런 생활에 탄식이 많았다.」[72] 라고 하여 조식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바로 조식의 怨의 風格 이라 할 수 있다. 曹植의 이러한 風格을 형성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난세에 태어나서 사회의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또한 漢末의 시대적 思潮인 建安風骨과 人生無常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시대의 다른 문인에게도 나타난다. 또 다른 이유는 형 曹丕와의 帝位 다툼에서 패하여, 조비가 왕위에 올라 인하여 조식에게 가해진 핍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71) 鍾京鐸, 《前揭書》, 丁晏曰 : 「詞旨切直, 陳思而外, 惟老杜有此忠悃, 此爲詩之正宗, 非餘子可及」.

72) 謝靈運, 《前揭書》 〈平原侯植〉. 「公子不及世事, 但美燕遊, 然頗有憂生之嗟」

그의 怨은 아주 심각한 면을 지닌다. 그러한 핍박이 明帝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러한 현실적 고통과 번국을 수 차례 옮기는 등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그의 怨詩에 잘 나타나 있다. 명나라때 李夢陽이 그의 《曹子建集·本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曹植은 그 音이 원망스럽고 그 情이 위태로우며, 그 말은 憤하고 절박하여 悲哀가 가득하니 曹植이 의심과 불안 속에 처했기 때문이다"
(嗟呼! 植, 其音宛, 其情危, 其言憤切而有餘悲, 殆處危疑之際者乎).

라고 하여 조식의 幽怨한 風格의 형성이 조식의 心身이 불안한 처지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조식은 그의 작품에서 婦女의 형상을 많이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이러한 詩들은 애정을 소재로 하는 詩들인데 그것들은 당시 많은 부녀자들이 압박당하는 것과 나그네들이 부인을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반영하여 사회현실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曹植 자신의 모습을 詩中에 寄託하여 詩속에 나오는 부인의 형상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屈原이후에 형성된 전통을 이어 받아서 夫妻의 관계를 君臣의 관계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시 속에 나오는 여자의 용모는 아름다우면서도 사랑 받지 못하는 것은, 조식 자신이 재주가 있으면서도 重用되지 못한 것이고, 시 속의 여자가 버림을 받는 것은 바로 조식 자신이 당시의 정치집단에 의하여 버림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서 조식은 버림받는 부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많은 詩 속에 표현하였다. 幽怨한 風格으로는, 種葛篇, 七哀, 浮萍篇, 等 3首가 전한다.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자.

種葛篇[73]

①種葛南山下　　남산 아래 칡을 심었더니

73) 《樂府詩集》·〈雜曲歌辭〉에 속해있다.

②葛藟自成陰　　칡넝쿨이 절로 무성하네
③與君初婚時　　님과의 신혼시절
④結髮恩意深　　夫婦恩愛의 情이 깊기도 하여
⑤懽愛在枕席　　잠자리에서 기뻐하고
⑥宿昔同衣衾　　늘상 이부자리 함께 하였네
⑦竊慕常棣篇　　마음으로 <棠棣> 詩를 좋아하여
⑧好樂如琴瑟　　琴瑟처럼 서로 좋아하였네
⑨行年將晩暮　　세월이 흘러 만년에 이르니
⑩佳人懷異心　　님께선 딴 마음 품어
⑪恩紀曠不接　　정은 끊어진지 오래되고
⑫我情遂抑沉　　내 마음 답답하고 침통하도다
⑬出門當何顧　　문을 나서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⑭徘徊步北林　　배회하며 北林을 거니는데
⑮下有交經獸　　나무 아랜 목을 서로 부비는 짐승들 있고
⑯仰見雙棲禽　　위에는 짝지은 새들 보이네
⑰攀枝長歎息　　나뭇가지 끌어잡고 긴 탄식하니
⑱淚下沾羅衿　　눈물이 흘러 옷자락 적시네
⑲良馬知我悲　　말도 나의 설움 아는지
⑳延頸對我吟　　목을 늘여 나를 대하고 우는구나
㉑昔爲同池魚　　예전엔 같은 연못 속 물고기였는데
㉒今爲商與參　　지금은 商과 參이라네
㉓往古皆歡遇　　예전엔 서로 만남을 기뻐하였으나
㉔我獨困於今　　지금은 나만 홀로 고단하다네
㉕棄置委天命　　포기하고 하늘의 운명에 맡기려 하나
㉖悠悠安可任　　절절한 이 마음 아득히 멀어 어찌 맡길거나

이 詩는 曹植이 文帝에게 버림을 받자 자신의 처지를 버림받는 부인에 비유한 작품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1~2句는 種葛의 무성함으로서 애정이 얼키고 설키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詩經의 王風 種葛篇에서 행복을 상징하던 種葛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과 같다.[74]

3~8句는 詩經 小雅의 棠棣篇의 妻子好合, 如鼓悲琴句의 뜻을 빌어 신혼초기의 夫妻間의 감정이 잘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비유하였다.

9~12句는 나이들어 님에게 버림 받아 침통한 마음을 묘사 하였다.

13~20句는 버림받아 배회하며 장탄식하며 외로워 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희롱하는 짐승과 비교하면서 더욱 슬퍼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암수가 서로 정답게 놀고 짝을 지어 있는 詩想은 조식의 생활과 연계하여 볼 때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고 또한 황제에게 重用을 갈망하는 마음은 詩 속의 부인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1~24句는 商星 參星을 빌어 부부가 이별 하였음을 비유하여 형제간에 반목과 대립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我는 버려진 여인인 동시에 시인인 조식 자신을 비유하였다.

25~26句는 자신의 운명을 天命으로 알고 체념하나, 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견디기가 힘들은 애달픈 마음을 노래하였다.

이 작품은 辭調가 슬프나 깊이가 있고, 文體가 溫厚하고[75] (調悲而遠, 文體以厚) 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다함이 없음을 노래한, 님을 그리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七哀[76]

①明月照高樓	밝은 달은 누각을 비추니
②流光正徘徊	흐르는 달빛도 배회 하는 듯 하도다
③上有愁思婦	누각위엔 시름겨운 아낙네
④悲歎有餘哀	비탄의 소리 슬프기 그지없네
⑤借問歎者誰	탄식하는 이 누구냐고 물으니

74) 李元燮 譯, 《詩經》, 玄岩社, p. 109.
75) 鍾京鐸, 《前揭書》 .p. 361.
76) 余冠英 《三曹詩選》,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8, p 72.

⑥言是宕子妻　　방황하는 이의 아내라고 말하네
⑦君行踰十年　　님 떠난 지 10여 년
⑧孤妾常獨樓　　외로운 저는 항상 홀로 누대에 올랐다네
⑨君若淸路塵　　님이 맑은 길의 먼지라면
⑩妾若濁水泥　　저는 흙탕물의 진흙이라오
⑪浮伉各異勢　　浮伉이 서로 다르니
⑫會合何時諧　　어느 때나 다시 만날는지
⑬願爲西南風　　원컨대 남서풍이 되어
⑭長逝入君懷　　멀리가서 님의 품에 안기고 싶으나
⑮君懷良不開　　님의 품 (진실로) 열리지 않으니
⑯賤妾當何依　　賤妾 어디에 의지하리요

이 詩는 달밤에 홀로 누각에 올라 길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고독한 閨怨을 달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1~2句는 詩의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고, 3~4句는 구체적인 作中인물을 설명한다.

1~4句를 보면 적막감이 깃든 높은 누각과 흐르는 달빛을 배경으로 달을 보고 長歎息하며 시름하는 여인의 형상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하다.

5~6句는 作中 인물의 身分과 恨歎하는 이유를 문답형식으로 제시하고, 7~8句는 십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깊은 傷心을 말한다.

5~8句를 보면 수심에 찬 부인은 집떠난 나그네의 아내이며 丈夫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외로운 신세가 되었음을 노래하고, 3인칭인 宕子의 妻를 대화체로서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점에서 조식의 뛰어난 예술성을 느낄 수 있다.

9~12句는 塵과 泥는 본래 一物로서 부부는 同體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뜨고 가라앉음에 따라 塵이 되고 泥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형 文帝와 자신의 지위가 다르나, 본래는 한 형제인데도 각기 처한 위치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劉履는 「子建과 文帝는 같은 母

親의 형제로서, 이제 浮沈이 다른 세력이고, 서로 더불어 친할 수 없으니 孤妾로서 子建 스스로를 比喩했다.77)」 라고 하여 이들의 지위와 운명이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13~16句는 남편에게 가고자 하는 아내의 간절한 願望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진흙에서 바람으로 변하여 님의 품으로 안기고자 하나 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괴로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유문은

「情이 깃 든 言辭는 조용하며 아름답고 간결, 진지하며, 근심이 얽히고 설키어 비통하여 말이 나오지 아니하면서도, 너그럽고 깊은 뜻이 있다」78).
(情辭委婉懇摯, 纏綿悱惻, 尤饒深致)

이처럼 이 詩의 정감을 표현했으며, 여기에서 표현된 君은 임금과, 남편의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감을 나타낸 것으로 형 文帝에게 관용을 구하는 것으로, 文帝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을 하지 못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棄婦詩79)

①石榴植前庭	석류를 앞 뜰에 심었더니
②綠葉搖縹青	푸른 입은 파랗게 휘날리네
③丹華灼烈烈	붉은 꽃 불타는 듯 하고
④璀采有光榮	고운 빛에 광채가 있네
⑤光榮葉流離	그 광채 유리처럼 빛나니
⑥可以處淑靈	신령스러운 것 머물만하네
⑦翠鳥飛來集	비취새 날아와 모이니

77) 《三曹資料彙篇》, 中華書局, 1980, p. 121.
劉履曰:「子建與文帝同母骨肉, 今乃浮沉異勢, 不相親與, 故詩以孤妾自喩, 而切切哀慮也.」
78) 趙幼文, 前揭書, p. 314.
79) 上同 p. 34.

⑧拊翼以悲鳴　　날개치며 슬피우는 구나
⑨悲鳴大何爲　　어이하여 슬피 우는고
⑩丹華實不成　　붉은 꽃만 피었지 열매가 없어서라네
⑪拊心長歎息　　가슴 슬어내리며 긴 탄식 하느니
⑫無子當歸寧　　자식이 없으면 소박을 맞는다네
⑬有子月經天　　자식이 있으면 하늘에 달과 같고
⑭無子若流星　　자식이 없으면 유성과 같다네
⑮天月相終始　　하늘과 달은 영원 하건만
⑯流星沒無精　　유성은 빛조차 사라져 버린다네
⑰棲遲失所宜　　머물 곳마저 마땅치 않아
⑱下與瓦石幷　　떨어져 기와나 돌맹이와 더분다네
⑲憂懷從中來　　근심스런 마음 가슴에 맺히니
⑳歎息通鷄鳴　　새벽닭 울 때까지 탄식한다네
㉑反側不能寐　　뒤척이며 잠못 이루고
㉒逍遙於前庭　　앞 뜰을 거니네
㉓踟躕還入房　　서성이다 다시 방에 드니
㉔肅肅帷幕聲　　소소히 휘장 나부끼는 소리
㉕搴帷更攝帶　　휘장 걷고 다시 의대 추스려
㉖撫絃調鳴箏　　줄 골라 箏을 타네
㉗慷慨有餘音　　슬픔이 충만한 소리
㉘要妙悲且淸　　미묘하게 슬프고도 맑구나
㉙收淚長歎息　　눈물 흘리며 긴 탄식하지만
㉚何以負神靈　　어찌하여 그 신령스러운 것에만 의지할 것이오
㉛招搖待霜露　　계수나무는 서리와 이슬 내리기를 기다리니
㉜何必春夏成　　어찌 꼭 봄, 여름에만 이루어지리
㉝晩穫爲良實　　늦게 수확하면 좋은 열매 얻는 법이니
㉞願君且安寧　　님께선 부디 마음 편히 하소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詩는 文帝시의 작품으로 자식이 없어 쫓겨나는 한 여인의 비탄을 비유하여 묘사한 詩로서 조식이 문제에게 소원함을 당하고 번국으로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재능은 있으나 등용되지 아니하자, 내쫓긴 신하로서 스스로를 한탄하며 棄婦로서 자신을 비유[80]한 작품이다. 이 詩를 분석하여 보자.

1~6句는 石榴의 화려함을 통하여 자식이 없어 쫓겨나기 전의 행복함을 묘사했다.

7~10句는 丹華가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헛된다는 것을 새가 슬피우는 것으로서 불행이 닥치리라는 것을 암시하여 준다. 여기에는 德과 智를 갖추었어도 임금에게 중용되지 못하는 조식 자신의 처지를 棄婦에 寄託하여 내포하고 있다.

11~18句는 자식이 없어서 소박 당하는 여인의 長歎息과 자식이 있고 없음으로 여인의 운명이 月, 流星, 瓦石에 비유하여 棄婦의 처지를 한층 비참하고 억울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19~28句는 失意 속에 잠못 이루며 방황하며 徘徊하는 棄婦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29~34句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을 내쫓은 남편에 대한 怨望과 언젠가는 자식을 얻으리라는 棄婦의 희망과 소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작품은 내용을 통하여 보면 당시 사회에서 封建禮敎의 여성압박과 인권유린을 알 수 있으며, 棄婦의 고뇌를 통하여 조식 자신의 처지와 임금을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浮萍篇[81]

①浮萍寄淸水	부평초 맑은 물에 의지하여
②隨風東西流	바람따라 이리저리 흐르네
③結髮辭嚴親	머리 엮고 엄한 부모를 떠나와서
④來爲君子仇	그대의 짝이 되었네

80) 鍾京鐸, 前揭書, p. 461. :「子建見疏於文帝, 婁遷國邑, 有才而不見用, 自嗟屛逐之臣, 故以棄婦自喩.」

81)《樂府詩集》〈相和歌辭・淸調曲〉에 속해있다

⑤恪勤在朝夕　　아침 저녁으로 삼가고 힘썼건만
⑥無端獲罪尤　　이유없이 미움을 받았다네
⑦在昔蒙恩惠　　지난날 그대의 사랑을 받아
⑧和樂如瑟琴　　금슬처럼 즐거웠다네
⑨何意今摧頹　　지금은 어찌하여 그 마음 틀어져
⑩曠若商與參　　商과 參처럼 멀리 떨어졌는가
⑪茱萸自有芳　　수유는 향기롭다지만
⑫不若桂與蘭　　계수와 난초 만은 못하다네
⑬新人雖可愛　　새 사람 비록 사랑스럽다지만
⑭不若故人歡　　옛 사람만 못하다네
⑮行雲有反期　　흐르는 구름 돌아올 수 있으니
⑯君恩儻中還　　그대의 사랑 혹시나 돌아오려나
⑰慊慊仰天歎　　서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노니
⑱愁心將何愬　　근심스러운 마음 어디에 하소연 하리오
⑲日月不恆處　　세월은 쉬지않고 흐르고
⑳人生忽若寓　　인생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네
㉑悲風來入帷　　찬바람 휘장으로 파고 드니
㉒淚下如垂露　　눈물이 이슬처럼 떨어지네
㉓散�frac{}{}造新衣　　반짇고리 열고 새 옷을 짓나니
㉔裁縫紈與素　　무늬 비단, 흰 비단을 자르고 깁는다네

이 작품은 무참히 버려진 부인이 옛사랑을 다시 찾기 위한 순수한 애정을 읊은 戀歌로서 悲歌다운 風格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詩 역시 曹植과 文帝사이의 관계를 諷刺하고 있는데, 작품을 분석하며 살펴보자.

1~10句는 浮萍草가 바람에 따라 흐르는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옛적에는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떨어져 이별해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11~14句는 茱萸가 비록 아름다우나 桂蘭과 같지 못하니 서로의 品格이 다름을 나타내

고 있다.

15~22句는 임이 행운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늘을 보고 탄식한다. 그로 인한 괴로움이 눈물이 되어 이슬처럼 떨어져 그 悲哀가 발전되고 있다.

23~24句는 새 옷을 만들어 단정히 입고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을 읊고 있다.

이 작품은 浮萍草을 조식 자신으로, 行雲을 임금으로 비유하여 자신은 물에 떠있고, 임금은 하늘에 있으니 서로 만날 길이 없음을 슬퍼하여 애절한 閨怨의 情으로 자신의 마음을 寄託하였다.

3. 悲憤

悲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中文大辭典》: 悲傷感歎也 (슬프고 마음 상해서, 이에 탄식함). 조식은 문제의 즉위 이후부터 누차 封國을 옮겨 다니며 유랑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이러한 유랑의 고통과 원망은 그의 시에 나타나게 된다. 유랑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민중들이 겪는 행역의 고통이나 이별의 슬픔 등을 조식은 직접 목격하고 느끼게 된다. 유랑과 행역의 비애감을 노래한 것은 악부나 고시에서도 종종 취급되는 주제이며 건안 시인들에게도 자주 다루던 주제이다. 그러나 조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극적 경험에서 나온 비애감과 민중이 겪었던 상황이 엇갈리면서 더욱 개성있는 작품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작품으로는 吁嗟篇. 當牆欲高行. 門有萬里客. 美女篇. 泰山梁甫行. 野田黃雀行. 等 6首가 전한다.

吁嗟篇[82]

①吁嗟此轉蓬	아! 이 떠도는 쑥대
②居世何獨然	세상살이 어찌 그리 외로운가
③長去本根逝	오래전에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
④宿夜無休閒	밤낮없이 쉴틈이 없구나

82)《樂府詩集》〈相和歌辭・淸調曲〉에 속해있다.

⑤東西經七陌　　東西로 끝없이 거리를 지나고
⑥南北越九阡　　南北으로 수많은 길을 넘네
⑦卒遇回風起　　홀연 회오리 바람 일어
⑧吹我入雲間　　나를 구름 사이로 불어 넣으니
⑨自謂終天路　　하늘 끝에 닿았나 싶더니
⑩忽然下阬泉　　돌연 심연으로 떨어지고
⑪驚飆接我出　　또 거센 폭풍 나에게 불어 날리니
⑫故歸彼中田　　어찌하여 들판으로 가게 하는가
⑬當南而更北　　南으로 가는가 싶더니 돌연 北으로 가고
⑭謂東而反西　　東인줄 여겼더니 도리어 西로구나
⑮宕宕當何依　　이리저리 방랑하니 어디에 의지할고
⑯忽亡而復存　　홀연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네
⑰飄飄周八澤　　八澤에 두루 돌아 보았고
⑱連翩歷五山　　五山도 나는 듯 지나가는 구나
⑲流轉無恆處　　정처없이 떠도니
⑳誰知吾苦艱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겠는가
㉑願爲中林草　　숲 속의 들풀이 되어
㉒秋隨野火燔　　가을날 들불에 타버리기 원하나니
㉓糜滅豈不通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야만은
㉔願與株荄連　　뿌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라네

이 詩는 자신의 신세를 쑥에 비유하여 유랑생활의 비통함을 자서전적인 태도로 작품을 썼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자.

1~2句는 마른 쑥을 조식 자신에게 비유하여 인격화시켰다. 1句의 吁嗟란 탄식어로 이 詩의 전체를 비장한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3~20句는 끝없는 방황에 비애감이 들고 부친의 죽음 후에 封國을 누차 옮겼으며,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1~24句는 骨肉分爭의 비극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나타내어 자신은 文帝를 보필하는 신하가 되고 싶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詩는 당시의 불행한 환경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신의 처지를 悲憤慷慨한 심정으로 조식 자신의 자서전적인 작품이다.

當牆欲高行[83]

①龍欲升天須浮雲	용이 升天하려면 구름이 있어야 하고
②人之仕進待中人	사람은 출세하려면 권력자가 필요하다
③衆口可以鑠金	많은 사람의 입은 금조차 녹이나니
④讒言三至	참언이 세 번이면
⑤慈母不親	자비로운 모친도 가까이 할 수 없다네
⑥憤憤俗閒	혼란한 이 세상
⑦不辨僞眞	眞僞가 구별되지 않아
⑧願欲披心自說陳	이마음 스스로 설명하려 하나
⑨君門以九重	군주의 대문은 아홉 겹이오
⑩道遠河無津	길은 멀고 강엔 나루터도 없구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詩는 소인배들이 진실과 거짓됨을 어지럽히고 君臣間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임금과 멀어지게 하는데 대하여 悲憤慷慨하는 조식의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1~2句는 당시 벼슬길에 나가려면 宦官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諷刺하여 당시의 어두운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였다.

3~5句는 故事를 인용하여 자신에 대한 讒言의 두려움을 나타내었는데, 이 故事는 《史記·甘茂傳》에 나오는 것으로서, 孔子의 제자 曾參은 유명한 賢者였다. 그가 어느 고을에 머물고 있는데 그 마을에 曾參과 같은 姓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를 저질렀다.

83) 《樂府詩集》, 〈雜曲歌辭〉에 실려있다.

어떤 사람이 曾參의 어머니에게 가서 아들의 죄를 말하였으나 아들의 品行을 믿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였으나 안정되게 삼베질을 하였다. 조금 있다가 또다른 사람이와서 말을 하니 曾參의 어머니는 놀라서 베틀을 놓고 뛰쳐 나갔다[84] 라는 故事이다. 이처럼 뭇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조식은 이러한 故事로서 묘사하였다.

6~10句는 진실과 거짓이 분별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에서 조식은 자신의 진실을 말하려 하나 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진실한 忠諫을 전달할 수 없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宦官들의 讒言이기 때문에 조식의 비분한 마음이 더욱 發하는 작품이다.

門有萬里客[85]

①門有萬里客	문 앞에 먼 길의 나그네여
②問君何鄉人	그대는 어느 고을 사람인가
③褰衣起從之	옷 추스리고 다가서서야
④果得心所親	아는 사람임을 알았다네
⑤挽裳對我泣	바지자락 끌어잡고 눈물 흘리며
⑥太息前自陳	한숨으로 지난일 하소연하네
⑦本是朔方士	본래는 북방의 선비였으나
⑧今爲吳越民	지금은 吳·越의 백성이라네
⑨行行將復行	가고 가고 또 갈것이니
⑩去去適西秦	장차 서쪽으로 秦까지 가려 한다네

이 詩는 거듭되는 전란 속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천지사방을 유람하는 나그네의 애환을 표현하고 있는데 조식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작품으로서, 조식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都邑

84) 余冠英 ,《前揭書》, p. 56
85)《樂府詩集》〈相和歌辭·瑟調曲〉에 속해있다.

을 세번이나 옮긴 것에 대하여 이를 寓言的으로 표현하여,[86] 나그네가 사방을 정처없이 방황하는 행역의 고통스러움을 묘사하였다.

작품을 분석하여 보자.

1~6句는 사방을 방황하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 하는 상황을 나타내었다.

7~10句는 자신의 고향은 북방이나 지금은 남방에 있고 다시 기약없이 떠나는 애처로운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詩를 鍾京鐸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 詩는 古詩十九首의 기교와 풍격을 본받아 직접적으로 서술하였으나, 一字도 더할 수 없으며, 悲情함이 지극하고 일반인들이 조식 시를 감상할 때 단지 才藻만 보지 그 진솔함을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本篇仿古詩十九首之技巧及風格, 直敍而不加一語, 悲情深至, 一般人欣賞植之詩, 只看其才藻, 而不知愛其眞率).[8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고 하였다. 이처럼 화려한 어휘를 쓰지 않고 직서법으로 써내려 가며 질박한 언어 속에서 당시의 민중의 애환과 작자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意想의 작품으로 泰山梁甫行이란 작품을 살펴보자.

泰山梁甫行[88]

①八方各異氣	사방팔방은 모두 다르고
②千里殊風雨	천리에도 다른 비바람 분다네
③劇哉邊海民	비참하구나! 변방 해변의 백성들
④寄身於草野	몸을 초야에 의탁하며 살아가네

86) 鍾京鐸, 《前揭書》 p. 381 : 「懷故土地, 子建 三徙都, 故寓言之.」
87) 上同, p. 134.
88) 《樂府詩集》 〈相和歌辭 · 楚調曲〉에 실려있다.

⑤妻子像禽獸　　妻子는 禽獸와 같아
⑥行止依林阻　　험준한 山林에 들고 난다네
⑦柴門何蕭條　　나무 울타리 어찌 저리 엉성하여
⑧狐兎翔我宇　　여우, 토끼 우리집을 드나든다네

이 詩는 변방 해변의 빈민들의 곤궁한 생활을 그리고 있다. 당시의 천하대란으로 어려워진 백성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조식 자신의 생활고와 처지를 비유한 작품이다. 이 詩를 분석하여 보면 시상이 너무나 황량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悲憤慷慨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작자 자신의 비분함을 묘사하고 있다.

美女篇[89]

①美女妖且閑　　아름다운 여인이 교태롭게
②採桑歧路間　　갈림길에서 뽕을 따고 있네
③柔條紛冉冉　　부드러운 가지 어지럽게 흔드니
④落葉何翩翩　　떨어지는 뽕잎 어찌저리 펄럭펄럭
⑤攘袖見素手　　소매 걷으니 백옥의 손이 보이고
⑥皓腕約金環　　하얀 팔에는 금팔찌를 끼었네
⑦頭上金爵釵　　머리에는 금비녀
⑧腰佩翠琅玕　　허리에는 비취 달았구나
⑨明珠交玉體　　밝은 구슬을 몸에 두르고
⑩珊瑚間木難　　산호 사이사이에는 목란이로다
⑪羅衣何飄飄　　비단 옷은 가벼이 날리고
⑫輕裾隨風還　　가벼운 옷자락은 바람 따라 감겨드네
⑬顧盼遺光彩　　이리저리 살피는 눈에 광채가 흐르고
⑭長嘯氣若蘭　　긴 휘파람에 난의 향기 퍼지네

89) 《樂府詩集》 〈雜曲歌辭・齊瑟行〉 에 실려있다.

⑮行徒用息駕　　지나가던 사람들 수레를 멈추고
⑯休者以忘餐　　쉬던 사람들 먹는 것을 잊는다네
⑰借問女何居　　어디 사는 여인인가 물으니
⑱乃在城南端　　성 남문 끝이라 하네
⑲青樓臨大路　　푸른 누각 길가에 있는데
⑳高門結重關　　높은 문은 쌍비장이 걸려있다
㉑容華耀朝日　　아름다운 얼굴 아침 햇살에 빛나니
㉒誰不希令顔　　누가 아름다운 용모를 흠모하지 않겠는가
㉓媒氏何所營　　중매장이는 어디에 있으며
㉔玉帛不時安　　玉帛로서 때를 정하지 않는가
㉕佳人慕高義　　미인은 고아한 뜻을 지닌 선비를 흠모하나
㉖求賢良獨難　　어진 선비는 진실로 얻기 어렵네
㉗衆人徒嗷嗷　　사람들은 헛되이 시끄럽게 떠들 뿐
㉘安知彼所觀　　어찌 저 미인이 바라는 바를 알리오
㉙盛年處房室　　성년이 되어도 규방에 홀로 지내니
㉚中夜起長歎　　한 밤에 일어나 길게 탄식하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詩는 漢代樂府民歌 陌上桑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그의 樂府詩中 樂府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자.

1~14句는 美女의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15~16句는 뭇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陌上桑의 「行者見羅敷 下擔捋髭鬚. 少年見羅敷 脫帽著帩頭 耕者忘其犁 鋤者忘其鋤」句의 뜻을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17~22句는 미녀의 거처를 통하여 귀족의 신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23~30句는 美人의 品格의 고상하나 성년이 되도록 혼인하지 못한 괴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조식 자신의 비분함을 미녀에 비유한 것으로서 조식이 〈求自試表〉를 올려 등용되기

를 바랐으나, 등용되지 못하는 것을 미녀가 良君을 구하기 어려움에 비유하여 자신의 처지를 읊었으며, 詩中에 비록 怨望의 情이있으나, 失意가 드러나지 않음이 이 詩의 妙味[90]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표현 기교면에서 보면, 다른 악부시처럼 典故나 引用句등이 거의 없으며 언어가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民間樂府의 질박함을 잃지 않았다[91]. 이처럼 내용과 기교면에서 한대악부 보다 새로운 風格으로 深化 발전시킨 美女篇은 조식의 악부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野前黃雀行[92]

①高樹多悲風　　높은 나무엔 바람 세차고
②海水揚其波　　바다에는 파도가 드날리네
③利劍不在掌　　날선 칼 손에 쥐지 못했으니
④結友何須多　　어찌 친구가 많겠는가
⑤不見籬間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울타리 사이에 노는 참새를
⑥見鷂自投羅　　매를 보고 그물에 뛰어드나니
⑦羅家得雀喜　　그물 친 사람 참새 잡아 기쁘겠지만
⑧少年見雀悲　　소년은 참새 보고 슬퍼 하여
⑨拔劍捎羅網　　칼 뽑아 새 그물을 베어버리니
⑩黃雀得飛飛　　노란참새 날아올라
⑪飛飛摩蒼天　　훨훨 창천에 다다르고
⑫來下謝少年　　내려와 소년에게 고맙다 한다네

이 詩를 분석하여 보면,

90) 《三曹資料彙篇》 p.176.「子建求自試而不見用, 如美女之不見售, 故以爲比, 詩中雖有怨望之情, 而不失之淺露, 此立言之妙也」.
91) 楊生枝, 前揭書, p. 163.「陌上桑的表現手法來寫的, 所以很少使用典故奇字, 也沒有流于矯飾, 言語雖然華美, 但却不離閭里歌謠之質」.
92)《樂府詩集》〈相和歌辭・瑟調曲〉에 실려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句는 높은 나무와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세차는 것처럼 자신도 항상 주위가 시끄럽다는 것을 묘사 하였다.

3~4句는 자신에게는 어떤 무기나 권력도 없으니 사귀려는 무리가 없어 고독함을 나타내었다.

5~6句는 소인배나 간신배들이 충신을 모함함을 새가 그물속에 걸려졌음으로 묘사하였다.

7~8句는 간신배들이 충신을 모함하여 잡음을 기뻐하나 소년은 그것을 보고 슬퍼함을 나타내었다.

9~12句는 칼을 뽑아 그물을 자르니 새는 자유로와 졌으니 조식 자신도 주의의 모든 것을 잘라 버리고 자유롭게 날아가서 자연의 호방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자유와 해탈의 추구는 이 詩에서 참새가 엉겁결에 새 그물에 걸렸다가 풀려나와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으는 쾌락의 심경을 그려 자신의 고민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친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도울수가 없는 자신의 처지와 정치에서의 야망이 점점 멀어지고 억압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점차로 자유와 해탈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그의 비분한 마음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작품으로, 하늘높이 자유롭게 날고 싶은 자기의 심경을 나타내었다.(野田黃雀行, 這種愛自由, 思解放的心理, 是曹植的詩的一个中心意境)[93]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詩는 전반기의 바르고 고상한 풍격이 비분강개한 풍격으로 바뀌게 된다. 建安風骨이라는 당시의 풍격위에 자신의 마음과 처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물에 기탁하여 표현 하였으며, 조식 자신의 경험과 애환을 詩로 승화시켜 주관적인 서정문학으로 발전시켜서, 漢代의 公利的이고 客觀的인 文學에서 탈피하여 六朝시대의 唯美主義 文學으로 발전하는 커다란 橋梁的 역할을 하였다.

4. 豪放

호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中文大辭典》에는 "뜻이 비범하고 세속에 구속되지 않음"[94].이라 했고, 《辭海》(上海辭書出版社)에서는."기운이 장대하고 얽매이지않음" [95].

---

93) 胡適, 《白話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9, p. 41.

以上의 例에 보이는 것처럼 豪放이란 예절을 중시하지 않으며, 세속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오만 하거나 때로는 방탕 하기까지 한 인물 됨됨이를 지칭할 때 사용된 것이다. 결국 호방은 호기있고 분방함을 뜻하는 말인데, 기상이 크고 사소한 절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가 호방하다고 할 때는 시에 나타나는 기상이 장대하고 과장기를 느끼게 할 정도로 요점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것을 의미한다.[96] 조식의 시가 호방한 풍격을 가지게 된 것은 시대적 환경, 개인적기질, 그리고 영웅적 패기가 넘치는 부친 조조의 시풍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식이 성장한 혼란스러운 시기의 정치적 권력자인 부친의 영향아래 제일 먼저 해야할일은 대의 명분을 세워 큰뜻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친의 사후에 그는 불우한 환경에 처했으므로 자신의 원래 품었던 웅지를 펼칠수가 없었으며, 문제의 억압을 거쳐 명제시기에 그의 호방한 기개가 다시 싹텄다. 그의 시 가운데에는 이러한 기개를 담은 호방시가 적지 않은데, 白馬篇. 妾薄命. 其2. 薤露行. 鰕蟬篇. 當欲有南山行. 當車以駕行. 當來日大難. 驅車篇. 等 9首가 전한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白馬篇[97]

①白馬飾金羈	황금 굴레로 장식하고
②連翩西北馳	서북으로 빨리 달리네
③借問誰家子	뉘 집의 아들인가 물으니
④幽幷遊俠兒	幽·幷지방의 유협소년 이라네
⑤少小去鄉邑	소년이 어렸을적 고향을 떠나
⑥揚聲沙漠垂	名聲을 사막에 떨쳤다네
⑦宿昔秉良弓	항상 손에는 좋은 활 들려 있고
⑧楛矢何參差	楛木화살이 들쑥날쑥

94)「謂意氣豪邁, 不拘細節也」
95)「氣魄大而無所拘束」
96) 車柱環,《中國詩論》, 서울大學校出版社, p. 105.
97)《樂府詩集》〈雜曲歌辭·齊瑟行〉에 실려있다.

⑨控弦破左的　　활시위 당겨 왼쪽것 깨트리고
⑩右發摧月支　　오른쪽에 화살 날려 月支 격네
⑪仰手接飛揉　　손들어 나는 잔나비 잡아채고
⑫俯身散馬蹄　　몸을 숙이니 말발굽이 어지럽구나
⑬狡捷過猴猿　　민첩함은 원숭이 보다 더하고
⑭勇剽若豹螭　　용맹스럽긴 표범, 용과 같네
⑮邊城多警急　　변방에는 긴급한 상황이 많고
⑯虜騎數遷移　　오랑케 기병은 자주 침입하네
⑰羽檄從北來　　급보가 북에서 날아오니
⑱匹馬登高隄　　말을 내몰아 높은 언덕 오르네
⑲長驅蹈匈奴　　멀리 달려 흉노족을 짓밟고
⑳左顧凌鮮卑　　고개 돌려 선비족을 능멸하네
㉑棄身鋒刃端　　날카로운 칼날 앞에 몸을 내맡기니
㉒性命安可懷　　목숨이 어찌 아까우리오
㉓父母且不顧　　부모조차 돌아보지 아니하거늘
㉔何言子與妻　　처,자식은 말해 무엇하리요
㉕名在壯士籍　　이름이 壯士 명부에 올랐고
㉖不得中顧私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네
㉗捐軀赴國難　　몸을 바쳐 國難에 나아가니
㉘視死忽如歸　　죽음을 홀연 원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한다네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詩는 조식 자신의 雄志를 遊俠少年을 통하여 표출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유협소년은 용맹스럽고 機智가 넘치며 愛國忠情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유협소년은 젊은시절 조식이 되고자 했던 人物像이었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자.

1~2句는 遊俠少年의 모습과 그의 활발함을 묘사하였다.

3~6句는 遊俠少年의 출신과 그의 명성을 묘사하였는데, 유협소년이 자기 자신임을 내

비친다.

7~10句는 그의 뛰어난 활솜씨를 생동감있게 표현 하였다.

11~14句는 遊俠少年의 용감하고 민첩함을 묘사했다.

15~20句는 邊防의 혼란스러움과 유협소년의 용감하고 英雄的 氣質을 묘사하고 있다.

21~28句는 국가가 위급하니 목숨을 아끼지 않는 遊俠少年의 애국심을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 국가가 큰 위험에 직면을 하였는데, 趙幼文은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明帝時代에 鮮卑族이 强盛하여 魏의 西北方面을 위태롭게 했으며, 匈奴부족도 長成안에 散居하여 魏의 안전에 威脅이 되었다. 曹植이 당시의 객관적인 형세를 보니 국가의 安危가 불리하자, 유협소년의 충성되고 용감한 정신으로 몸을 던져 粉骨碎身하는 영웅의 형상을 빌어 자신의 報國하는 宿願을 서술하고 있다.」[98]라고 표현 하였다.

이 詩는 조식 자신이 무예가 뛰어나고 剛健하며, 용감한 邊塞의 遊俠少年을 통하여 자신의 雄建한 氣像과 愛國忠情함을 나타낸 작품이다.

薤露行[9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天地無窮極	天地는 무궁하고
②陰陽轉相因	陰陽은 相生 한다네
③人居一世間	인간이 세상살이
④忽若風吹塵	바람속에 먼지와 같구나
⑤願得展功勤	바라건대 공을 세워
⑥輸力於明君	明君의 힘이 되려 하였으나
⑦懷此王佐才	보좌할 재능 지니고서도
⑧慷慨獨不群	더불지 못함을 서글퍼 하네
⑨鱗介尊神龍	한갓 물고기도 龍을 받들고

98) 趙幼文, 前揭書, p. 413. 「曹叡時代, 鮮卑强盛. 給曹魏西北邊防以强大壓力. 而匈奴部族居在長成之內, 也予魏國安全以威脅, 曹植鑒於當前客觀形勢於國家安危具有不利, 因而敍述幽並遊俠少年忠勇魏國, 損軀糜身於英雄形象, 藉以抒寫自己爲國展力的宿願.」

99) 《樂府詩集》 〈相和歌辭〉에 속해있다.

⑩走獸宗麒麟　　짐승들은 기린을 섬기니
⑪蟲獸猶知德　　벌레와 짐승도 덕을 알거늘
⑫何況於士人　　하물며 선비들 임에야
⑬孔子刪詩書　　孔子가 詩書를 刪定하자
⑭王業燦已分　　제왕의 功業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⑮騁我徑寸翰　　내 작은 붓끝이나마 놀리어
⑯流藻垂華芬　　그 文章 만세토록 남게 하리라

시제인 薤露는 한대 악부가사인 蒿里와 같은 노래인데, 해로와 호리는 죽음을 애도하는 喪歌이다. 본래 田橫의 문인에서 나온 것으로, 橫이 자살하자 문인들이 그것을 슬퍼하여 지은 悲歌이다. 한무제때에, 李延年은 二曲으로 나누었는데 薤露는 왕공귀인을 送葬할 때 부르고, 蒿里는 士大夫와 庶人을 送葬할 때 부르는 것이다. 상여를 끌고 가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노래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挽歌라 하였다.[100] 이 詩는 인생이란 매우 짧은 것이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재능을 발휘하여 공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孔子처럼 후세에 문장으로 이름을 떨쳐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내용을 분석하여보자.

1~4句는 천지는 무궁한데 인생의 짧음을 노래 하였다. 인생을 덧없이 바람에 날리는 티끌에 비유하여 해로와 같음을 묘사여 시제인 輓歌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5~8句는 진심으로 明君을 도와 功業을 이루고 싶은데 자신의 정치적 불운을 안타까워함을 묘사 하였다.

9~12句는 조식이 문제와 명제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 불우한 환경이 계속되자, 자신은 진실로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는 유교적 사상을 묘사하였다.

13~16句는 자신이 끝내 정치적으로 공업을 세우지 못하면 차선책으로서 문학을 선택하여 그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식은 이미 〈與楊德祖書〉에서 그의 뜻을 밝혔다.

「내가 비록 덕이 없으나, 지위는 藩侯가 되니 서로 힘을 합하여 나라를 받들고 백성들

100) 《樂府詩集》(卷二十七)

에게 은혜를 베풀어 永世의 功을 세우고 金石의 功을 남기기를 바라니, 어찌 헛되이 글로서 공을 삼고 辭賦로써 군자가 될 것인가? 만약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道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여러 관리의 實錄을 수집하고, 時俗의 得失을 분명히 하며, 仁義의 표준을 정하여 일가를 이루고자 한다.」[101] 라고 하여 그의 뜻을 밝혔다.

이 詩는 조식의 호방한 의지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현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공업의 의지 못지않게 문학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그의 豪放함이 돋보인 작품이다.

鰕鱓篇[102]

①鰕鱓遊潢潦	작은 고기 도랑에서 노닐며
②不知江海流	강과 바다를 모른다네
③燕雀戲藩柴	제비, 참새는 울타리 사이에서 놀며
④安識鴻鵠遊	어찌 鴻鵠의 노님을 알겠는가
⑤世士此誠明	세상의 선비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네
⑥大德固無儔	진실로 큰 덕은 비할 데가 없음을
⑦駕言登五嶽	마차 몰아 五嶽에 올라
⑧然後小陵丘	丘陵의 작음을 비로소 알게 되네
⑨俯觀上路人	대로에 선 사람들을 내려다 보니
⑩勢利惟是謀	오직 勢利만을 도모 한다네
⑪讎高念皇家	숭고한 뜻은 皇家를 보호하고
⑫遠懷柔九州	원대한 마음은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 싶어
⑬撫劍而雷音	劍을 만지니 뇌성이 울리고
⑭猛氣縱橫浮	맹렬한 기운, 사방으로 떠도네
⑮汎汎徒嗷嗷	정처 없이 떠돌며 슬피 우니
⑯誰知壯士憂	누가 壯士의 근심을 알겠는가

101) 註 32 참조
102) 《樂府詩集》 〈相和歌辭・平調曲〉 에 실려있다.

이 詩는 比喩를 사용하여 俗人과 壯士는 그 指向하는 바가 다름을 말하고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노래하고 있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자.

1~4句는 鯫鱓과 燕雀을 소인배에 비유하고 자신을 天地間에 노니는 鴻鵠에 비유하여 小人과 壯士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다는 것을 묘사하여 자신의 호방한 기개를 나타내었다. 詩句중에서 鴻鵠은 장자의 逍遙遊[103]에서 大鵬의 意境을 취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즉 조그만 새는 鵬의 큰 뜻을 짐작할 수가 없을 것이며, 자신의 경지는 범부의 추측을 불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5~6句는 자신의 큰덕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 때문이고 오직 壯士만이 큰 덕을 알 수 있음을 묘사 하였다.

7~10句는 五嶽을 오른후에 丘陵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자기의 德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소인배가 勢利만은 쫓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묘사 하고 있다.

11~12句는 적들이 강하여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의 원대한 꿈은 九州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타내었다.

13~14句는 보검을 만지고 우렁찬 천둥소리는 용맹스러운 기개가 넘치는 조식의 웅장한 의지를 묘사하고 있다.

15~16句는 정착할 곳도 없이 떠돌며 자신의 근심을 알아주지 못하여 탄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方祖燊은 「조식은 세인들이 평소에 품은 생각과 충심을 이해해주지 못함을 마음 아파했다. 자신의 가련함을 되돌아보매 기세가 호방하고 굳세다.」[104] 라고 하였다.

이 시는 詩中에 많은 比喩를 사용하여 소인배와 壯士의 다름을 설명하고 속세인이 形勢만 쫓는 것을 나무랐으며 자기의 雄大한 氣概와 抱負를 밝혔다.

以上에서 豪放한 風格의 樂府詩를 살펴보았다. 조식은 明帝의 즉위를 계기로 〈自求試表〉를 올려 자신이 登用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다. 그러나 조식의 처지는 호전되어지

---

103) 李民樹 譯解,《莊子》, 惠園出版社, 서울, 1992, p. 10-15요약.

104) 方祖燊,《漢詩研究》p. 272.「傷感世人不識他的素懷, 不了解他的忠心, 顧盼自憐, 聲氣豪健」.

지 않았다.

그의 고통과 悲哀로 얼룩졌던 晩年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품어왔던 雄志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쳐 보겠다는 의지를 詩로서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식의 호방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忠義 의식은 그의 시를 剛健하고 성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조식의 문학은 이러한 성실함이 저변에 깔려있어 그의 문학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5. 飄逸

飄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漢語大辭典》에는 "뜻이 청신하고 탈속적이며, 의경이 높고 멀다"[105] .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에는 "어울리지 않고 가려고 하며, 우뚝하니 무리에 끼이지 아니한다"[106].

飄逸은 또한, 높이 날아 올라감을 이르는 말로 인물이나 시문이 뛰어난 것을 말할 때도 쓰인다.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홀로 떠도는 경지에서 느끼는 風格이라 할 수 있으며, 구름을 자르고 하늘을 나르는 신선의 情趣와 彷佛한 것을 가르키는 것이라 하겠다.[107] 즉 飄逸한 風格이란 노장의 도가사상과 도교의 신선사상 및 고대의 신화 전설 등이 작품에 사용되어 신비롭고 낭만적이며 표연히 속세를 떠나 마음껏 遠遊하는 氣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遊仙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遊仙은 작자의 신선세계에 대한 상상을 仙人과의 交遊, 仙境, 服食 等으로 묘사하고 있다.

遊仙的 類型의 작품 형성 요인은 시대와 개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식의 경우에서 보면, 첫째는 한말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유가사상의 衰退, 노장 현학의 흥기에 따른 시대적 배경으로 오랜 전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백성이 죽고 백골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참혹한 환경하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세상을 슬퍼하여 비상한 감정이 遊仙으로 표출된 것이다. 두번째는 文帝와 明帝 압박속에서 그의 뜻은 좌절되어 失意속에 老莊과 遊仙의 경지로 빠져 들 수 밖에 없는 개인적인 환경요인 이다. 이처럼 曹植은 晩年에 이르러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몸도 점점 쇠약해져 자신의 雄志를 펼칠 수 없게 되자 자연히 그의 사상도 消極的이며 厭世的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부자연

105)「淸新灑脫, 意境高遠」.
106)「落落欲往, 矯矯不群」
107) 申柱環, 前揭書, p. 115

스런 생활, 정신적 고통,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탈을 얻고자, 長生不死의 老莊思想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신선의 경지를 빌려 정신적 고통을 발산하였다. 전하는 작품으로는 升天行. 其2. 仙人篇. 遊僊. 五遊詠. 善哉行. 平陵東行. 苦思行. 遠遊篇. 桂之樹行. 飛龍篇. 等 11首가있다. 이에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의 飄逸한 풍격을 살펴보자.

遠遊篇[108]

①遠遊臨四海　　멀리 四海에 노닐며
②俯仰觀洪波　　큰 파도를 굽어본다
③大魚若曲陵　　산과 같은 大魚는
④乘浪相經過　　파도를 타고 지나가고
⑤靈龜載方丈　　靈龜가 方丈山을 짊어지니
⑥神嶽儼嵯峨　　신령스러운 산은 우뚝도하다
⑦仙人翔其隅　　仙人이 그 모퉁이를 떠다니고
⑧玉女戲其阿　　仙女도 기슭에 노닌다
⑨瓊蕊可療饑　　옥가루로 배를 채우고
⑩仰首吸朝霞　　고개 들어 일출의 붉은 기운 마신다
⑪崑崙本吾宅　　崑崙이 본시 나의 집이니
⑫中州非我家　　中州(속세)는 나의 집이 아니라네
⑬將歸謁東父　　돌아가 東王公을 뵐려고
⑭一舉超流沙　　한달음에 流沙를 뛰어넘네
⑮鼓翼舞時風　　날개짓하며 온화한 바람속에 춤추고
⑯長嘯激清歌　　길고 맑은 노래 드날린다
⑰金石固易敝　　金石은 깨지기 쉽고
⑱日月同光華　　세월은 빛과도 같다
⑲齊年與天地　　수명이란 천지와 더부는 것 같으니

108) 《樂府詩集》 〈雜曲歌辭〉 에 속해있다.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⑳萬乘安足多　　萬乘의 王이 어찌 부러우리

이 詩는 굴원의 楚辭중 遠遊에서 편명을 빌렸다. 굴원의 원유는 자신은 방직한 행동을 했으나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다. 위로는 讒訴하고 간사한 무리들의 헐뜯는 바가 있고, 아래로는 속인들에게 괴롭히는 바가되어 山河를 방황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에 신선에게 의탁하여 함께 유희하면서 천지를 두루 거닐어 가지않은 곳이 없다[109]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조식도 역시 자신이 훌륭한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와 명제의 시기를 받는다. 이러한 현실의 압박에서 자신의 심정을 유선에 기탁하였다.

이 詩를 분석하여 보면,

1~12句는 조식의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심정과 그의 탈속의 마음을 나타내였다.

13~20句는 부귀와 존귀함을 바라지 않고 신선처럼 장생불사하여 영원함을 추구하겠다는 표일한 기상을 표현하였다.

이 시는 方丈, 崑崙과 같은 仙境과 王女, 東父 等의 仙人들의 단어에서 보듯이 고대 신화의 전설 및 신선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있다.

朱嘉徵도 이 詩를 평하여 太史公은 굴원을 일컬어 그 뜻이 결백하고 그의 명성이 아름다워 日月과 함께 빛을 다툼이 可하다 하였으니, 陣思王도 뜻을 세움에 皎然하여 아울러 밝게 빛날 수 있다.[110] 라고 하였다.

仙人篇[111]

①仙人攬六著　　신선이 六著를 들고서

②對博太山隅　　태산 모퉁이에서 (주사위)를 즐기네

③湘娥拊琴瑟　　湘娥는 琴瑟을 뜯고

---

109) 李民樹 譯, 《楚辭》 明文堂. 서울, p. 320

110) 鐘京鐸, 前揭書, p. 343. 朱嘉徵 曰: 「太史公謂屈大夫, 其志潔, 其稱物芳, 雖與日月爭光可也, 思王立志皎然, 可以並剛」.

111) 《樂府詩集》 〈雜曲歌辭〉 에 실려있다.

④秦女吹笙竽　　秦女는 笙竽를 부네
⑤玉樽盛桂酒　　옥술동이엔 桂花酒 넘치고
⑥河伯獻神魚　　河伯이 神魚를 바친다
⑦四海一何局　　四海는 어찌이리 좁으며
⑧九州安所如　　九州는 갈만한곳 어디인가
⑨韓終與王喬　　韓終과 王子喬가
⑩要我於天衢　　나를 하늘 길에 초대하네
⑪萬里不足步　　만리는 산보 하기에도 부족하니
⑫輕舉陵太虛　　가볍게 하늘로 떠오른다
⑬飛騰踰景雲　　오색 구름 위로 날아 오르니
⑭高風吹我軀　　공중에 부는 바람 나에게 불어오고
⑮迴駕親紫微　　수레 몰아 자미궁으로 돌아가서
⑯與帝合靈符　　上帝와 영부를 맞춰본다네
⑰閶闔正嵯峨　　閶闔은 참으로 우뚝 하고
⑱雙闕萬丈餘　　雙闕은 만장이 넘치는구나
⑲玉樹扶道生　　나무들 길가에 자라고
⑳白虎夾門樞　　흰호랑이 문을 지키네
㉑驅風遊四海　　바람몰고 사해을 노닐며
㉒東過王母廬　　동으로 西王母의 집을 지나네
㉓俯觀五嶽間　　五嶽을 내려다보니
㉔人生如寄居　　인생은 참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것 같으니
㉕潛光養羽翼　　빛나는 재주 감추고 양 날개를 길러
㉖進趨且徐徐　　앞으로 천천이 나아가리
㉗不見軒轅氏　　軒轅氏(黃帝)를 찾아볼 수 없으니
㉘乘龍出鼎湖　　용을 타고 鼎湖로 나가볼까
㉙徘徊九天上　　九天을 배회하며
㉚與爾長相須　　오래도록 당신(皇帝)을 기다리리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품을 분석하여 보자.

1~6句는 太山에서의 여러 神仙의 遊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7~8句는 天上에서 인간계를 내려다 볼 때 四海와 九州가 좁아서 뜻을 펼칠 수가 없다고 나타내었는데, 자신이 재능과 능력이 중용 되지 않음을 비유하였다.[112]

9~22句는 현실 생활에서의 고민과 고통을 해탈하여 仙境에서 遊戱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23~30句는 仙境에서 노닐고는 있지만 인간 세상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니, 德을 기르며 賢君을 기다리려는 조식의 희망을 나타내였다.

傅亞庶는 이 작품을 評하기를 이 시는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對偶가 정렬하며, 聲律이 조화롭고 뜻이 넓게 열려있어, 後人이 감상할만하다고 평하였다.[113]

이 詩는 현실세계의 고민에서 해탈하기 위하여 환상적인 현실세계에서 노닐며 인간세계와 선계의의 경계를 망각하고 마지막에는 賢君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었는데, 고대의 신선 전설을 인용하여 조식의 의식세계를 표출시키며, 飄逸한 氣象속에 仙人에게 뜻을 두어서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軒轅과 같은 聖人이 있으면 나가서 應하겠다[114] 는 뜻을 나타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桂之樹行[115]

①桂之樹	계수나무
②桂之樹	계수나무
③桂生一何麗佳	계수나무가 아름답게 자라
④揚朱華而翠葉	붉은꽃 푸른 잎사귀 휘날리고

112) 前揭書, p. 194.
113) 傅亞庶, 《三曹詩文全集譯注》, 吉林文史出版社, 吉林, 1997, p. 595.
114) 趙福壇, 《曹魏父子詩選》, 三聯書店, 1998, p.195. 朱乾 說: 託意仙人, 志在養晦待時, 意必有聖人如軒轅者, 然後出而應之. 所謂達可行於天, 下然後行之者也.
115) 《樂府詩集》 〈雜曲歌辭〉에 실려있다.

⑤流芳布天泄	향기는 하늘끝까지 퍼져나간다
⑥上有棲鸞	위에는 난새가 깃들이고
⑦下有蟠螭	밑에는 龍이 있다네
⑧桂之樹	계수나무
⑨得道之眞人	득도한 선인들이
⑩咸來會講仙	모두 모여 도를 논하고
⑪教爾服食日精	선도를 가르키며 새벽 이슬을 먹게 하는도다
⑫要道甚省不煩	선술은 번뇌를 없이하고
⑬澹泊 無爲 自然	澹泊하고 無爲하여 自然스러우며
⑭乘蹻萬里之外	솟구쳐 오르면 만리밖이다
⑮去留隨意所欲存	가고 머무는 것이 뜻대로 이어서
⑯高高上際於衆外	높이 높이 올라 하늘끝에 이르고
⑰下下乃窮極地天	아래로는 세상을 꿰뚫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詩를 분석하여 보자.

1~7句는 계수나무의 형상과 주변의 상황을 묘사하여 선경의 환경을 나타내였다.

8~16句는 계수나무 주위에서 道를 論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조식은 이러한 상황이 통치계급에 대한 그들의 생활과 환경을 비유하여 자신도 거기에 합류하고자 하는 희망을 나타내였으며, 12구에 나타난 淡泊[116], 無爲[117], 自然[118] 等은 老子思想의 영향을 받아 得道하여 天地에서 遊戱하고자 하는 사상이 내포되었다.

趙幼文은 이 시를 評하기를 통치계급에의 추구를 장생의 추구로서 강렬한 원망으로 비유하였다.[119] 라고 評하였다.

이 시는 여러 신선이 道를 논하는 형상을 상상하여 묘사하여 놓았는데, 도교적인 사상이 농후함이 나타나있는데, 《楚辭·招隱士》篇에 "桂樹叢生兮山之幽" 라는 句가있는데,

116) 《老子· 三十五章》: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117) 《老子· 三十七章》: 道常無爲, 而無不爲
118) 《老子· 二十五章》: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19) 趙幼文, 前揭書, p. 399.

조식은 그의 遊仙詩중 屈原의 형상에 많은 동기를 부여한 것 같다[120].

以上의 작품을 분석하여 본 결과 曹植의 樂府詩중 遊仙詩가 대단히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식의 理想이 좌절되고 정신적과 육체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不老長生과 신선의 자유로운 경계를 빌어 자기 解脫을 시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식의 飄逸한 風格의 樂府詩는 詩語가 신비스럽고 환상적이며, 도교의 신선사상과 노장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완전한 도교사상의 몰입은 불가능하였다. 조식의 현실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조식은 도교의 신선과 노장사상 속에서 그의 좌절된 현실상황을 寄託하여 飄逸한 風格의 樂府詩를 창작하여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理想을 追求하였으며, 조식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굴원의 작품을 모방하여 참신성과 진실성이 다소 부족함이 느끼지나, 後代에 낭만주의 문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취에는 조식 자신의 다양한 학습과 사회적 환경이 바탕이 되어 그의 문학이 형성되었음을 주목해야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0) 俞紹初 · 王曉東,《曹植選集》,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7, p. 96.

제 Ⅳ 장. 結論

조식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특색은 前代와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학이 집권자의 중시를 받아 遊戱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경론하는 대사업이고 不朽의 성대한 사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學術에 종속되었던 위치를 벗어나서 독립을 이룩한 시기이다. 문학에 대한 理解, 敎化, 敎育등 사회적인 功利性을 버리고 순수한 서정과 뜻을 표현하는 도구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문체는 비록 화려했으나 결코 순수함이나 질박함을 떠나지 않았으며 당시 서민의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한대 악부민가 언어의 장점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서정과 참신한 자연미의 언어를 융합하여 만든 결과이다.

물론 문학사에서 개혁과 계승의 문제는 나누기 어려우나 조식의 악부는 한대악부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또한 대담한 창작을 통하여 서로에게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

生涯에 있어서는 왕위계승의 문제가 조식의 문학에 끼친 영향을 중점 고찰하였으며 이로 인한 文帝와 明帝의 박해가 조식 작품의 고통과 원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文學的背景에서는 당시의 혼란했던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문인들이 사회에 관심을 돌리게 되어 악부가 서정화 되었으며 儒學이 쇠퇴하고 道家와 佛家등이 성행하게 되어 문학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낭만주의적 氣風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文學觀에 있어서 조식은 漢代의 功利主義的 문학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으나, 창작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였으며 결점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는 것이 창작의 태도라고 하였다.

淵源面에서 보면 詩經에서 意想 및 형식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種嶸이 詩品 卷上에서 조식시의 연원을 평하여 〈其源出於國風〉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굴원의 楚辭에서는 飄逸한 풍격을, 漢代民間樂府에서는 질박한 풍격을, 古詩十九首에서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계승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악부의 意境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식은 악부시를 朝廷과 상류사회에서의 宴會上에서 서민의 일상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 시켰음을 알 수가 있었다.

風格의 분류에서는 典雅, 幽怨, 悲憤, 豪放, 飄逸한 風格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典雅한 風格으로는, 箜篌引, 名道篇, 鬪鷄, 惟漢行, 預章行, 其2, 丹霞蔽日行, 怨歌行, 君子行, 當事君行, 盤石篇, 等 11首.

幽怨한 風格으로는, 種葛篇, 七哀, 浮萍篇, 等 3首.

悲憤한 風格으로는, 吁嗟篇, 當牆欲高行, 門有萬里客, 美女篇, 泰山梁甫行, 野田黃雀行, 等 6首.

豪放한 風格으로는, 白馬篇, 妾薄命, 其2, 薤露行, 鰕蟬篇, 當欲有南山行, 當車以駕行, 當來日大難, 驅車篇, 等 9首.

飄逸한 風格으로는, 升天行, 其2, 仙人篇, 遊僊, 五遊詠, 善哉行, 平陵東行, 苦思行, 遠遊篇, 桂之樹行, 飛龍篇, 等 11首로 분류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典雅한 風格을 보면, 이 때는 부친 曹操의 집권하여 근심 없고 화려한 公子의 생활을 보장받던 시기로서,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 부친의 寵愛를 받으며 당대의 문인들과 交遊하며 창작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幽怨한 風格은 형 曹丕와의 帝位 다툼에서 패하고, 조비가 왕위에 올라 조식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핍박을 가하자 그의 幽怨한 정서가 작품 속에 드러났으며 이는 또한, 悲憤慷慨하는 풍격으로 이어진다.

豪放한 風格을 살펴보면, 조식이 성장한 혼란스러운 시기의 정치적 권력자인 부친의 영향아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의 명분을 세워 큰 뜻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친의 사후에 그는 불우한 환경에 처했으므로 자신의 원래 품었던 웅지를 펼칠 수가 없었으나 그의 詩 가운데에는 이러한 기개를 담은 호방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飄逸한 풍격을 살펴보면, 첫째는 漢末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유가사상의 衰退, 노장 현학의 흥기에 따른 시대적 배경으로 오랜 전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백성이 죽고 백골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참혹한 환경하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세상을 슬퍼하여 비상한 감정이 遊仙으로 표출된 것이다. 두번째는 文帝와 明帝 압박 속에서 그의

뜻은 좌절되어 失意 속에 老莊과 遊仙의 경지로 빠져 들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환경요인이다.

아울러 작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식 악부시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조식은 典故를 즐겨 썼다는 점이다. 전고를 사용하여 比喩에 이용하거나 논리의 근간을 찾고 문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문장의 생동감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는, 模倣인데 특히 유선시의 경우, 대부분 屈原과 宋玉의 字句를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식은 자신의 삶을 굴원에 비교하고 또한 그에게서 큰 영향 받았음을 알 수가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황과 조식의 생활환경을 굴원의 시대와 연결지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조식의 악부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思想面에서는 정치적 이상과 현실을 위해서 儒家사상을 택하였고,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道家사상의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였다.

內容面에서는 前代의 객관적인 서사문학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서정문학을 형성하였다.

形式面에서는 漢代樂府의 질박한 문체에서 벗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의 발달을 가져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文學史面에서는 전통적인 功利主義 문학에서 魏晉南北朝 시대의 낭만주의와 유미주의의 문학으로 발달하는 과도기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상 조식의 악부시를 대상으로 연원과 풍격면의 고찰을 하였다. 조식은 뛰어난 재질과 부지런한 창작으로 중국 고전시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는데, 詩經과 楚辭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후인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로 말미암아 조식의 중국문학사적 위치는 대단히 가치있는 일로 제고되어야 하며, 雜言體의 樂府가 建安시대의 문학양식으로 채택되어지면서 일정한 시체로 定型化 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雜言體나 비정형체식이 조식의 손을 거쳐 五言體로 확립되면서 이후 中國詩의 主要詩體로 확립된 점은 역시 그의 공헌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參考文獻

1. 單行本

陳　壽, 《三國志·魏書》, 中華書局, 1987.

曹幼文, 《曹植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98.

楊生枝, 《樂府詩史》, 靑海出版社, 1985

符顯仁, 《詩經欣賞》, 莊嚴出版社, 1982.

金學主, 《樂府詩》, 민음사, 1976.

復印報刊資料,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中國古代, 近代文學研究, 1981～1990》.

孫明君. 《三曹與中國詩史》, 淸華大學出版社, 1999.

胡應麟, 《三曹資料匯編-詩藪》, 中華書局, 1980.

蕭滌非, 《漢魏六朝樂府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8.

方祖鑫, 《漢詩研究》, 臺北 正中書局, 1969.

郭茂倩, 《樂府詩集》, 中華書局出版, 1996.

李世烈 譯, 《漢書藝文志》, 자유문고, 1995.

崔信浩 譯註, 《文心雕龍》, 玄岩社, 1975.

李民樹 譯, 《文心雕龍》, 乙酉文化社, 1984.

金學主, 丁範鎭, 《中國文學史》, 汎學圖書 1979.

車相轅, 《中國古典文學評論史》, 汎學圖書 1975.

金學主, 《中國古代文學史》, 民音社. 1991.

金學主, 《漢代詩研究》, 光文出版社, 1974.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明文堂, 1994.

許世旭, 《中國古代文學史》, 法文社, 1987.

金學主, 《中國文學史》, 新雅史, 19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唐松波, 《漢語修辭格大辭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
余冠英, 《三曹詩選》, 人民文學出版社, 1999.
申柱環, 《中國詩論》 서울大學校出版部. 1994.
吳功正, 《文學風格七講》, 上海文藝出版社 1983.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1996.
胡國瑞, 《魏晉南北朝樂府詩史》, 上海文賦出版社, 1980.
朱 熹, 《詩經》 三秦出版社, 1996.
余國欽 選注, 《古代民歌百首》, 新蕾出版社, 1988.
李元燮 譯 《詩經》, 玄岩社.
中華書局編輯部, 《曹操集》, 中華書局, 1974.
李在夏, 《人間曹操》, 바다출판사, 1999.
任昭坤, 《曹操》, 軍事科學出版社, 2000.
胡 適, 《白話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9.
李民樹 譯, 《楚辭》, 明文堂. 1992.
趙福壇, 《曹魏父子詩選》, 三聯書店, 1998.
傅亞庶, 《三曹詩文全集譯注》 吉林文史出版社 1997.
韓養民, 《秦漢風俗》, 陝西人民出版社, 1987.
蔡 儀, 《文學概論》, 人民文學出版, 1985.
鄭其筠, 《中國俗文學史》, 臺灣商務印書館, 1987.
葛曉音, 《漢唐文學的嬗變》, 北京大學出版社, 1990.
于 非, 《中國古代文學》, 高等教育出版社, 1988.
江西大學校中文系, 《中國文學史》, 百花洲文藝出版社, 1991.
俞紹初 · 王曉東, 《曹植選集》, 人民文學出版社, 1997.
段寶林, 《中國民間文學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81.
張永鑫, 《漢樂府研究》, 江蘇古籍出版社, 1999.
李鐘燦, 《漢文學概論》, 梨花文化出版社, 1998.
邱英生, 高爽 編著. 《三曹詩譯釋》, 黑龍江人民出版社, 199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羅根澤, 《樂府文學史》, 東方出版社. 1996.

萬涤非, 《樂府詩詞論藪》, 齊魯書社出版發行, 1985.

岳珍, 訳析, 《樂府詩集》,新疆青少年出版社, 1999.

叶君遠 著, 《詩》, 人民文學出版社, 1994.

《漢魏六朝詩歌鑑賞集》, 人民文學出版社編輯部, 1985.

趙光勇, 《漢魏六朝樂府觀止》,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8.

周生亞 著, 《古代詩歌修辭》, 語文出版社, 1996.

北京大學中國文學史 教研室選注, 《兩漢文學史參考資料》, 中華書局出版, 1986.

胡漢生, 《唐樂府詩譯析》, 北京大學出版社. 1997.

余冠英 選注, 《樂府詩選》, 人民文學出版社, 1997.

趙福壇 選注, 《曹魏父子詩選》, 三聯書店, 1998.

劉崇德 選注, 《漢魏六朝詩精華》. 人民文學出版社, 1992.

王運熙 著, 《樂府詩述論》, 上海古籍出版社. 1996.

劉筑琴, 《樂府詩三百首》, 三秦出版社, 1999.

王汝弼, 《樂府散論》, 陝西人民出版, 1984.

張壽平, 《漢代樂府與樂府歌辭》, 廣文書局有限公司, 1970, 初版

王運熙, 王國安 著, 《樂府詩集導讀》, 西蜀書社出版, 1998.

郭沫若 譯, 《繪圖屈原離騷》, 中國和平出版社, 1994.

袁行霈 著, 《中國詩歌藝術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8.

李炳漢,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通文館, 1985.

路南孚, 《中國歷代敍事詩歌》. 山東文藝出版社, 1987.

陳耳東, 《歷代情詩三百首》, 百花文藝出版社, 1995.

楊家駱, 《古詩集釋等四種》, 世界書局, 1978.

劉木杰, 《魏晉思想論》, 上海古籍出版社. 199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論文類

金鍾振, 曹植詩論考, 碩士, 1971.

李在夏, 曹植文學研究, 碩士, 1981.

鮮于世昊, 三曹樂府詩研究, 碩士, 1983.

高惠淑, 曹植詩研究, 碩士, 1983.

李在敦, 曹植詩文의 韻部研究, 碩士, 1983.

李翼熙, 曹植賦研究, 碩士, 1986.

李元揆, 曹植詩研究, 碩士, 1987.

李雅瑛, 曹植詩研究, 碩士, 1987

揚金永, 曹子建樂府詩研究, 碩士, 1988.

李雅瑛, 三曹詩歌文學研究, 博士, 1995.

金成鎭, 曹植詩研究, 碩士, 1996.

盧基鉉, 曹植詩의 藝術的 成就에 관한 研究, 碩士,1996.

李昇薰, 曹植의 詩에 사용된 典故의 특성에 관한 연구, 碩士, 1997.

范善均, 曹植의 贈答詩, 中國文學 제4집, 1977.

文璇奎, 曹植의 文學的 環境과 文學觀, 中國文學 제7집. 1980

高惠淑, 曹植文學의 淵源考察, 中國學研究, 1988.

李雅瑛, 三曹樂府詩研究, - 內容의 抒情性을 中心으로 - 中國人文科學, 1987.

李雅瑛, 三曹樂府詩研究, - 樂府形式을 中心으로 - 中國人文科學, 1988.

江聰平, 樂府詩研究, 興國出版社, 1978.

張淸鐘, 兩漢樂府詩之研究, 臺灣商務印書館, 1979.

陳義成, 漢魏六朝樂府研究, 臺灣輔仁大學校中文研究所碩士, 1977.

최동표, 曹子建의 洛神賦研究, 계명대학교 비사론집, 1983.

河正玉, 曹植詩攷,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978.

蘭翠, 曹植의 古詩研究,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11호, 199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